

오늘의 도서관

초

최초의 소리

인류는 언제 처음 소리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때는 150여 년 전인 18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의 귀를 탐구하여 소리 기록 장치인 포노토그래프를 발명한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서 인쇄업자이자 발명가로 활동하던 에두아르-레옹 스코트 마르탱빌이었다. 그는 귀와 같은 원뿔체의 도움으로 소리를 한데 모으고, 이때 발생하는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기록했다. 그가 남긴 녹음 기록은 인류 최초의 음성 녹음이며, 이후 음성 기록매체는 축음기, 음반, 디지털 음원 등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류의 노력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동시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소리들을 붙잡아둬으로써 오래도록 생생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02**
2022. 05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매체박물관

| 표지 이야기 |

포노토그래프(Phonautograph)의 탄생

1856년 말, 파리에서 인쇄업과 교열 일을 하던 에두아르-레옹 스코트 드 마르탱빌(Edouard-Leon Scott de Martinville)은 인간의 귀를 탐구하여 소리 기록 장치인 포노토그래프를 발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가 남긴 녹음 기록은 인류 최초의 음성 녹음으로, 이후 축음기 등의 음성 기록 매체가 발명되며 단순 기록매체의 영역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되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2권 제4호 통권 302호

발행일 2022년 4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0104-000026-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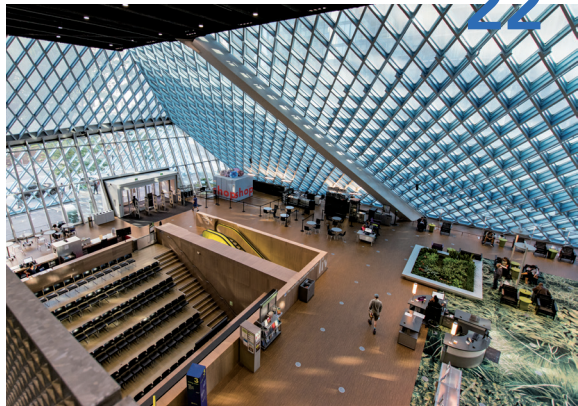
편집위원 김윤, 손효림, 송재술, 이정민, 박수영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Contents

늘 서재

- 04** **오늘의 칼럼**
전쟁에 대처하는 도서관과 사서의 자세
- 06** **자료 보존 이야기**
과거와 미래를 담은 <국악동요선집>
우리 말과 음악으로 노래하는 아이들을 꿈꾸며
- 10** **장서 속 인물들**
<사재집> 목민관 김정국
백성의 고통스런 삶을 구제하려 했던 학자에게
배우는 리더십
- 14** **사서는 독서 중**
5월, 따스한 봄에 어울리는 도서 추천

오늘의 도서관 5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l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열린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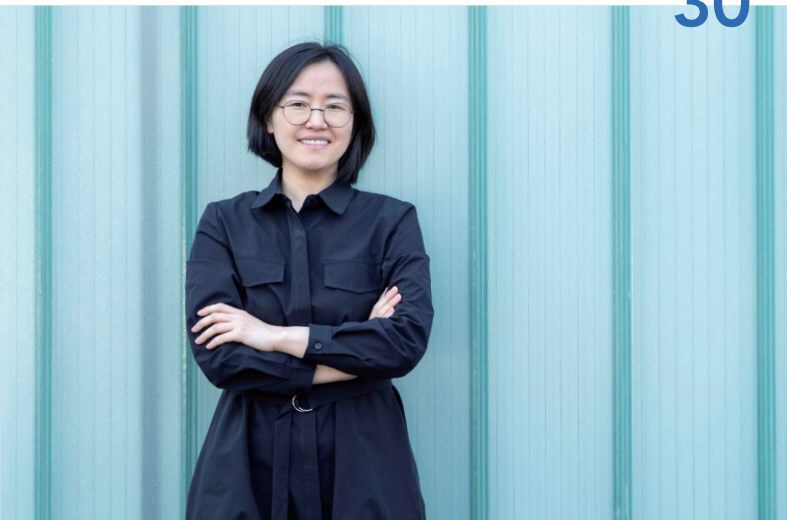
- 18** **나를 키운 도서관**
김보희 편집자와 대림도서관
함께 산책할까요?
- 22** **해외 도서관 랜선 투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는 모두의 도서관
미국 공공도서관
- 26** **도서관 트렌드**
공존의 씨앗이 되는 도서관
책과 함께 즐기는 자연의 풍요로움

북 라운지

- 30** **오늘의 만남**
'책'은 읽고 싶기 전에 갖고 싶어야 해요
<마법천자문> 시리즈 최초 기획자 은지영
- 34** **우리가 사랑한 작가**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된 천재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38** **독립서점 산책**
경주 독립서점 '소소밀밀'
그림책에 따스한 온정을 담다
- 42** **책 읽어드립니다**
이민진 <파친코>
차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 46** **꺼내 먹는 책**
그림책 <요리요정 라쿠쿠와 오색비빔밥>
맛도 영양도 만점, 오색 비빔밥
- 48** **책 듣는 시간**
스티븐 크보스키 소설 <월플라워> 속
더 스미스 'Asleep'
10대라는 터널을 무사히 지나온 우리들에게

도서관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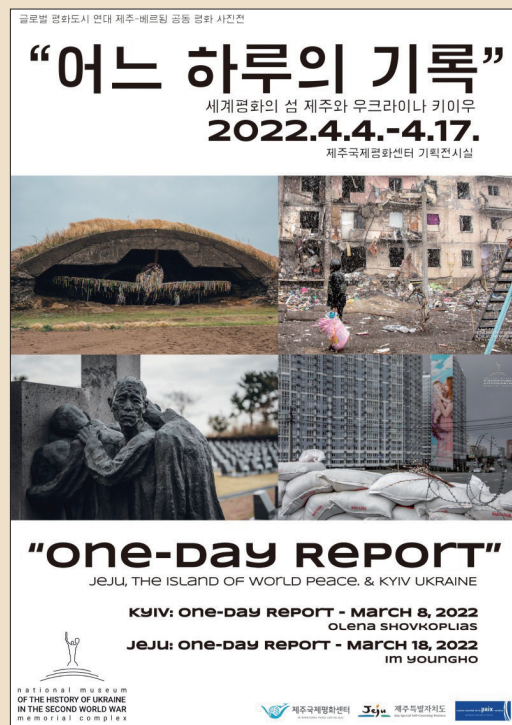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웹툰-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책바다? 책 받아!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신청 안내)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전쟁에 대처하는 도서관과 사서의 자세

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제주국제평화센터 사진전 '어느 하루의 기록' 포스터.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사진전 '어느 하루의 기록'을 관람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모습을 3월 8일 하루 동안 카메라에 담은 사진작가 올레나 쇼브코플리아스(Olena Shovkoplias)의 작품 40여 점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친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진 아파트 폐허 더미에 거꾸로 처박힌 파란색 자전거였다. 불과 얼마 전 까지도 신나게 페달을 밟았을 저 자전거 주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난민이 되어 이국땅을 헤매고 있을까? 아직 살아 있을까?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하 IFLA))은 즉각적인 전쟁 종식을 요구함과 동시에 세계의 도서관 및 사서들이 우크라이나 동료들과 연대하고 지지 해주기를 호소한다.” IFLA 집행이사회(Governing Board)가 2022년 3월 21일에 발표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입장문은 이렇게 끝맺고 있다. 국가가 무력을 발동했을 때 그 희생자는 일반 시민이며,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유산 기관이 직접적 공격을 받아왔음을 인식하고 있는 IFLA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상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IFLA 외에도 세계국립도서관장회의(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CDNL),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 국제푸른방패(Blue Shield International, BSI), 유럽디지털인문학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Digital Humanities, EADH) 같은 국제단체를 비롯해 국가별 또는 관종별 도서관협회와 사서단체, 국가도서관 등 수많은 기관이 앞다투어 지지와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명단과

원문은 예컨대 유럽도서관협회연맹(European Bureau of Library,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ssociation, EBLIDA)이 개설한 웹페이지 'Libraries for Ukraine(www.eblida.org/libraries-for-ukraine.html)'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슬라브족 및 동유럽학을 지원하는 도서관들의 연합체(Council for Slavonic and East Europea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SEELIS)가 개설한 웹사이트 'Libraries helping Ukraine(<https://coseelis.wordpress.com/libraries-helping-ukraine/>)'에서는 영국의 국립도서관이나 보들레이안 도서관,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 관련 웹 아카이빙 프로젝트들의 링크를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모여드는 폴란드 등 이웃 나라들에서는 난민들에게 도서관을 임시숙소로 개방하기도 하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각종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클럽을 조직하고, 우크라이나어로 된 책을 수집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국립 덴마크 디지털도서관은 우크라이나어로 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벤더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난민 어린이를 위한 숙제 도우미와 그림책 서비스, 보드게임과 레고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처하는 도서관과 사서들의 활동은 2018년에 출판된 책 <다라야의 지하 비밀도서관>을 떠올리게 만든다. 시리아 내전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책을 모아 만든 비밀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강의를 열고 대화를 나누며 절망 속에서도 평화를 꿈꾸고 인간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 우크라이나 사진작가 쇼브코플리아스는 때마침 내리는 눈발 속에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남성, 피난길 트럭에 앉아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일가족, 병사가 건네는 꽃다발에 환히 웃는 여성을 찍은 일련의 사진들을 전시장 맨 마지막에 걸어두었다. 나는 작가의 이런 사진 배치를 갈등과 파괴의 전쟁에 맞서서 도서관과 사서들이 벌이는 상생과 창조의 노력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읽었다. ❶

우리 말과 음악으로 노래하는
아이들을 꿈꾸며

과거와 미래를 담은 <국악동요선집>

흔히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한다. 마치 음악이 만국 공통어인 양,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악을 공부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세계 곳곳의 음악이 다양한 색깔로 구별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음악에는 국경도 있고, 민족도 있고, 지역도 있다.

글 김혜정 사진 김혜정, 국립중앙도서관

말과 노래

음악은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길고 짧음, 높고 낮음의 정도는 언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과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은 그만큼 다를 수밖에 없다. 문장의 첫음절에 강세가 오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에 한국음악에는 악박으로 시작하는 음악이 없지만 첫음절에 강세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영어권 음악에서는 못갓춘마디(음악에서 박자의 첫박 이외의 박에서 시작되는 마디)나 악박으로 시작하는 음악이 많다.

그래서 서양음악에 한국어 가사를 붙인 경우, 음악과 언어의 강세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 중에 애국가 가의 시작 부분의 ‘동해물과’를 ‘동/ 해물과’로 듣는 친구들이 있다. ‘해’에 강세가 들어가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또 가사의 뜻을 너무 잘 아는 노래는 가사에 맞게 박자를 바꿔버리기도 한다. 생일날 부를 때는 ‘생일’과 ‘합니다’에 강세를 주지만 영어로 부를 때에는 ‘Birthday’와 ‘you’에 강세를 주는 것이다. 결국 못갓춘마디인 영어 노래를 한국인들은 갓춘마디로 바꿔 노래하는 것이다.

생일 축하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울음과 노래

그런가 하면 음의 높낮이 규칙도 서양과 한국의 것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음악을 전혀 모르는 한국인조차도 소리내어 울음을 울 때는 한국의 음계로 운다. 음악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체득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울음소리와 가장 가까운 음악만이 본인을 깊이 위로해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 된다는 점이다.

울음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몇 해 전 흥미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소개된 적이 있다. 프랑스 신생아와 독일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억양이 정반대였다는 내용이었다. 태아일 때 엄마의 말을 듣고 어떻게 울어야 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는 것이다. DNA에 새겨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민요 토리(음악 사투리)로 울음을 운다. 그래서 경기, 강원과 경상, 전라의 울음소리가 서로 다르다. 정확하게 사투리가 다른 만큼 울음소리가 다르고, 음악도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에게 십어진 음악의 뿌리를 아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음악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울음은 가르치지 않아도 체득되지만 음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울음을 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감정을 가다듬고 정화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

여전히 힘이 센 일본 동요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음악 가운데 아이들의 노래, 동요가 있다. 모든 민족의 동요에는 민족적 정체성이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가장 기초적인 동요마저도 자주적이지 못한다면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일까?

그동안 우리나라 전통 놀이로 알려졌으나 몇 해 전 일본 놀이 ‘하나치치 문메’에서 전래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일본의 동요 ‘우리 집에 왜 왔니’의 경우를 돌아보자. 우선은 음계와 박자가 일본의 것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이 노래에 담긴 철학적 기반이나 배경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비슷한 놀이의 우리나라 전래동요에는 아이를 농작물이나 가족에 비유하여 수확하는 모습을 모의하고 풍년을 꿈꾸는 가사가 담긴다. 그러나 일본의 노래 가사에는 도깨비가 아이를 사서 데려간다고거나, 아이를 꽃에 비유하여 데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놀이는 비슷하지만 배경과 철학에서 커다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씨 사러 갔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인저 사가지고 왔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밭에 갈았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씨가 트인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꽃이 맺었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열매가 달렸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인제 익어간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인제 익었다
가:동아 사러 왔다 나:익은 거 따가거라



창작 국악 동요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과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등이 실시되고 있다.

| | | |
|---------------------------|---------------------------|-------------------------|
| 일본 이터미시 전래동요, '후고현 와리베우타' | 鬼:「子買お子買お」 | 아이 사요, 아이를 사요 |
| | 他:「何もんめで買いなさる」 | 얼마에 사시나요? |
| | 鬼:「一もんめで買いましょう」 | 1냥으로 삽시다 |
| | 他:「そりゃ安い」 | 그건 싸다 |
| | 鬼:「二もんめで買いましょう」 | 2냥으로 삽시다 |
| | 他:「そりゃまだ安い」 | 그것도 아직 싸다 |
| | 鬼:「十もんめで買いましょう」 | 열 냥으로 삽시다 |
| | 他:「そんなら売りましょう、どの子が欲しいござる」 | 그렇다면 팝시다. 어느 아이가 갖고 싶소? |
| | 鬼:「△△さんが欲しいござる」 | △△짱이 갖고 싶소 |
| | 他:「もうて何しやる」 | 데려다 뭐 할래 |
| | 鬼:「二階で手習い」 | 2층에서 가르칠래 |
| | 他:「あぶない」 | 위험해 |
| 출처 : www.kodomo-kaion.jp | 鬼:「その下で手習い」 | 그 아래에서 가르칠래 |
| | 他:「手が汚れる」 | 손이 더러워져 |
| | 鬼:「水で洗う」 | 물로 씻어라 |
| | 他:「つめたい」 | 차가워 |
| | 鬼:「いい加減でうめてやれ」 | 적당히 가감해서 미지근하게 해 |
| | 他:「そんなら売りましょう」 | 그렇다면 팔지 |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요를 잃고 일본 동요를 부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창작되는 동요조차도 일본 시의 율격인 7·5조와 일본이 수용한 서양음악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췌췌췌’, ‘짹짹’의 일본어가 그대로 남았고, ‘여우야 여우야’, ‘우리 집에 왜 왔니’, ‘아침바람 찬바람에’ 등의 가사가 한국어로 바뀌었을 뿐 일본의 것이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점점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흐려지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과 닮은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아이들은 노래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위로하며,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동요의 존재와 서양음악 기반의 동요들 속에서 국악 동요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국악동요선집> 음반이다. 노력의 초창기에는 우선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요가 필요했으므로, 새롭게 창작한 창작 국악 동요를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 국립국악원에서는 1987년부터 국악동요제를 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국악동요제’였고, 지금은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과 국립국악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으로 나누어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국악동요선집> CD와 악보집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국악동요선집4>의 CD.

1987년부터 지금까지 국악동요제를 통해 많은 동요들이 새롭게 탄생했고, '사물 악기가 된 도깨비', '아침 해', '쥐생원', '어어리두 배 짓자' 등 적지 않은 곡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동요 부르기 대회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곡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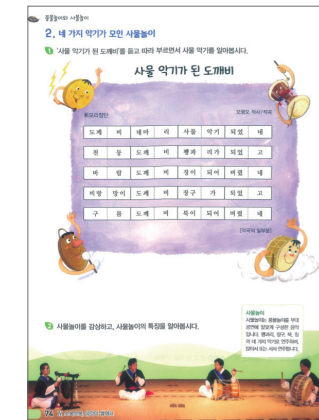
무려 3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국악동요제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국악동요선집>, 또는 <국악동요제>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출판하고 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2년에 1매, 이 후부터 매년 1매씩 발매되어 현재 32집까지 출판되었다. 그중 199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매된 10개의 음반 자료와 1998년, 2005~2010년, 2012년의 동요제 실황을 KBS가 영상으로 제작한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국악동요 : best collection>(2014)이라는 2장의 음반에 동요제 작품 가운데 인기를 끌었던 곡을 모아 재발매한 음원과 <국악동요제 : 1987~2000>의 동요 악보집, <국악동요제 20주년 기념토론회 : 국악동요 활성화 방안> 자료집 등이 소장되어 있어 국악동요제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초기 동요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러 작품 가운데에서도 '참새', '꼬꼬리노래' 등 소박한 전래동요를 닮은 고(故) 이성천 작곡가의 작품은 오히려 어린이를 위해 욕심을 뺀 소탈한 마음이 느껴지는 곡들이다. 또 '벚노래', '맑은 물 흘러가니' 등은 당시 KBS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방영해주어 전 국민에게 친숙한 노래가 되기도 했으니,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한장면을 되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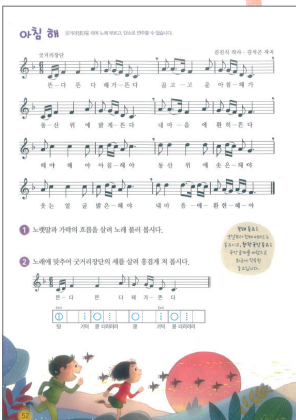
<국악동요선집>은 음반마다 평균 12~15곡의 새로운 동요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총 400여 곡에 달하는 동요를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국악 동요를 접하고 신나게 부를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국악동요선집>은 더없이 소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동요는 아이들의 첫 음악 언어이다. 어떤 언어를 심어주는지에 따라 평생의 취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국악 동요는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야 할 미래 세대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는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동요를 부르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을 돕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국악동요선집>에 집약되어 담겨 있다. ❷



2006년 국악동요제 수상작
(<음악4>, 지학사, 2022)



1987년 국악동요제 수상작
(<음악6>, 동아출판사, 2022)

김혜정 |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국악교육의 지향과 민요의 교육적 활용>이 있고, '창작국악동요의 현황과 과제', '전래동요와 와라베우타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쟁점' 등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청각 자료 보존

<국악동요선집>과 같은 CD 형태의 자료는 시청각 자료에 속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와 같은 비도서 자료*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자료를 신뢰성 있게 보유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자료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비도서 자료 : 책자 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 자료, 영상 자료, 지도, 마이크로 형태 자료, 전자 자료, 실물 자료, 기타 비책자 형태의 자료

시청각 자료란?

- 시청각(Audiovisual) : 시각이나 청각에 관련된 것
- 시청각 자료(Audiovisual Materials) : 녹음된 사운드, 동영상, 정지 화상 등에 해당
- 음향 자료 종류 : 음반, 음향 카세트, CD 등
- 영상 자료 종류 : 비디오테이프, DVD, Blu-ray 등

시청각 자료의 손상 유형

- 자기테이프(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 곰팡이, 지지체(폴리에스테르) 열화, 물리적 손상, 자성이나 전기로 인한 데이터 손실 등
- 광디스크(CD, DVD, Blu-ray)
: 표면 스크래치·이물질 등으로 인한 정보 손상, 알루미늄 산화로 인한 반사 오류, 물리적 파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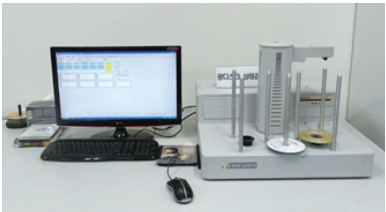
시청각 자료의 장기 보존 관리 방법

- 자기테이프 : 자료가 저장된 자기테이프 표면을 만지지 않는다.
- 광디스크 : 디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중앙과 가장자리를 잡아야 한다.
- 매체는 재생 후 재생 장비에서 바로 분리한다(노출과 기계적 손상 방지).
- 자석, 전기 등 자기장에 영향을 끼치는 물체와 함께 두지 않는다.
- 매체의 열화 징후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시청각 자료의 보존 과정

광디스크 보존 처리 과정

- ❶ 육안 점검 : 스크래치, 굽힘 등 디스크의 표면 상태를 점검한다.
- ❷ 기록 상태 검사(DVX Autoloader) : 물리적 상태 및 기록된 데이터의 품질(Quality) 측정, ISO/IEC 권고 기준에 따라 PIE sum8이 280보다 큰 경우 B등급 이하로 구분한다. 280보다 큰 경우 해당 디스크에 수록된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 ❸ 보존 처리(표면 연마기) :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은 경우 표면 연마기를 사용하여 표면의 스크래치를 제거한다.



기록 상태 검사 장비



표면 연마기

보존 상자 보관

시청각 자료는 기록매체와 재생 장비의 보존 수명 문제가 있으므로 보존 처리를 거쳐 디지털화되며, 원본 자료는 보존 상자에 넣어 국립중앙도서관 비도서 보존서고에 보존된다.

<사재집> 목민관

김정국

(1485~1541)

기묘사림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재 김정국. 그는 학문적 역량도 뛰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많은 후학을 길러낸 ‘조선 중기의 대표적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사재집>과 함께 그의 리더로서의 진면목을 조명해본다.

글 박미라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백성의 고통스런 삶을 구제하려 했던 학자에게 배우는 리더십



<사재집>은 사재 김정국의 굴곡진 삶과 여정이 담긴 그의 문집이다.

엘리트 관료에서 애민(愛民)의 표상으로

중종 때의 대표적인 개혁 정치가라 하면 으레 조광조(趙光祖)를 떠올리지만, 조광조와 결을 달리하면서도 역사적 전환기에 사회 변혁을 주도한 또 한 축에 사재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이 있었다. 형인 모재 김안국(金安國)과는 조광조의 스승인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함께 수학하며 연이어 문과에 급제, 뛰어난 문장력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들 형제의 우애는 꽤나 각별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각각 ‘사재(思齋)’와 ‘모재(慕齋)’라 자호(自號)를 정하기도 했다.

김정국이 문과 장원으로 급제한 것은 1509년(중종 4년), 그의 나이 스물다섯 살 때였다. 이때 처음 관직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홍문관과 대간직 등 주요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국정에 참여했다. 당대의 엘리트 관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활동한 때는 정치·사회적으로 격변하던 시기였다. 그는 출사한 이후부터 줄곧 현실의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중종의

가까이에서 새로운 통치 질서 수립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던 1518년(중종 13년) 11월, 관직에 오른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외직인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 받게 되었다. 조정의 여러 관료들은 그가 승지(承旨)의 직을 맡아 계속해서 경연(經筵,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할 인재라며 외직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중종은 당시 황해도가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를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사재뿐이라며 인사를 강행했다. 김정국에 대한 중종의 신임과 기대가 매우 두터웠던 것이다. 결국 그해 12월 김정국은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했고, 그의 애민(愛民) 활동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그는 현장에 투입된 목민관(牧民官)으로서 궁핍한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무고한 옥사(獄事)와 송사(訟事)를 바르게 처리하며, 탐관오리(貪官汚吏)에 대한 보고 문서를 올리는 등 이른바 선정(善政)을 베풀며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경민편(警民編)>을 간행·배포하여 우매한 백성들을 교육하고, ‘학령(學令)’ 24조를 만들어 후학을 권면하기도 했다. 그가 부임한 지 1년여 만에 백성들이 그를 매우 칭송하고 따랐다고 하니, 과연 젊은 개혁가의 탁상행정은 아니었으며, 그의 애민정신과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사재집>의 표지와 속지.

기묘사화, 변화된 삶과 이룬 것들

1519년(중종 14년) 서른다섯 살이 되던 해 11월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그가 황해도 관찰사를 제수 받은 지 만 1년 만의 일이었다. 이 일로 김정국 역시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고양(高陽) 망동리(芒洞里)에 은거하게 되었다. 그는 ‘은휴(恩休)’라는 호를 새롭게 지었는데, 임금의 은혜로 휴식하며 평소의 뜻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기묘 사림들이 죽거나 귀양을 가기도 했는데, 김정국은 파직이 되었을 뿐 더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은휴정(恩休亭)이란 작은 정자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펴내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그에게 배우려는 많은 선비들이 문하에 모여들었으므로 띠집을 지어 육무당(六務堂)이라 이름하고 강론을 그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지운(鄭之雲)·유용심(柳用諶)·박형(朴衡) 등의 후학을 양성하며 <성리대전서절요(性理大全書節要)>, <역대수수승통지도(歷代授受承統之圖)>, <문범(文範)> 등 초학자를 위한 다양한 이론서를 간행하였다.

당대의 핵심 관료로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갑자기 기묘사화라는 시련이 불어닥쳤지만, 그



<사재집>은 국역으로도 출판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김정국의 도덕과 문장이 오히려 응축된 <사재집>

이처럼 김정국은 학문과 정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애만’과 ‘교육’이라는 두 개의 코드를 통해 그의 리더십을 포착해낼 수 있다. 사가독서(賜暇讀書)에 선발될 정도의 엘리트로 거침없이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던 그가, 기묘사화로 인해 삭탈관직 되어 은거 생활을 하고, 다시 관직에 복직이 되지만 과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굴곡진 삶의 여정과 분투는 그의 문집인 <사재집(思齋集)>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재집>은 1591년(선조 24년) 김정국의 손자 김요립(金堯立)이 평안도 영유 현령(永柔縣令)으로 있을 때 당시 평안도 관찰사 윤두수(尹斗壽)의 도움을 받아 간행하였다. 그런데 이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 후 1603년(선조 36년)에 영유 현령 윤효선(尹孝先)이 초간본의 잘못된 곳과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간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4권 2책의 ‘초간후쇄본’ <사재집>이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권1·2에 380제 526수(권1 266수, 권2 260수)의 시가 대체로 저작 연대순으로 실려 있는데 주로 감회를 읊은 작품이 가장 많고, 이 외에 뛰어난 경치를 노래한 시, 유생들에게 학업을 권면한 시, 제자들에게 학문을 권유한 시, 백성의 생활고를 걱정하는 시,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자에게 선정을 당부하는 시, 만시(輓詩), 안빈낙도의 삶을 노래하는 시 등이 있다. 권3에는 44편의 문(文)이, 권4에는 ‘척언(摭言)’과 ‘기묘당적(己卯黨籍)’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척언’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여러 인물들의 일화를 기록하며 당시의 사회상을 날카로운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김정국이 관직생활을 하며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실제 경험했던 경연과 옥사, 그리고 백성의 삶과 얽힌 여러 에피소드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목적으로만 편찬한 저술이 아닌,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아득한 옛사람의 생平和 의식세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문집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그중 한 일화를 살펴보자. 김정국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이동(李同)이라는 백성이 밥을 먹으면서 그 부친과 다투다가 밥그릇을 집어던져 아버지를 때렸고 그로 인해 붙잡혀온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강상(綱常)에 어긋나는 대죄라 판단해 엄정한 벌을 내리려고 했지만, 추국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다. 이에 김정국이 이는 죽음에 상응하는 죄라고 알려주자 이동은 깜짝 놀라며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울며 항변했다. 이윽고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가볍게 곤장을 치는 것으로 훈방조치를 취하게 된다.

는 이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20여 년간 한결같이 제자를 양성하고 여러 저술을 펴냈으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닌가. 이 시기 김정국은 청빈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넉넉한 것이 여덟 가지나 있다는 의미에서 ‘팔여거사(八餘居士)’라는 자호를 붙이기도 했다. 빈한했지만 마음만은 이토록 여유로운 부자였으니, “책 상자를 지고 공부하러 온 자가 전후로 계속 이어지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마치 여관의 과객(過客)과 같이 많았(<사재집> ‘육무당기’ 중)”을 수밖에.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살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민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방문을 수집하여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을 편찬하기도 했다. 당시 파식된 신분으로 직접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백성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ㅣ 꼭미라 ㅣ

동국대학교 국문과에서 <조선전기 筆記의 식지향과 성격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필기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한문학 자료를 탐독하며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삼검루수필>(2018), <해동삼유록>(2011)을 공역하였으며,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 기록문화 콘텐츠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김정국의 <경민편>.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사람의 도리와 윤리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사재 김정국의 묘역.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니, 이는 바로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아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비록 본래 타고난 능력이지만,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저절로 깨치리오. 옛적에 덕으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질서를 잡고 성단(城旦, 형벌의 일종)을 말해주어 백성을 가르친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다.”

-<사재집> ‘척언’ 제35화 중에서

평소 김정국은 목민관으로서 관료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을 강조했다. 대개 옥사는 판결을 담당하는 관리의 능력에 의해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난 후, 백성의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급 아전들의 농간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억울하게 목숨까지 잃게 된 것 또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지했기에 벌어진 참극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사람의 도리와 가장 관계되고 백성이 범하기 쉬운 일을 12조목으로 만들어 마침내 <경민편>을 펴내게 되었다. <경민편>과 <경민편언해> 역시 국립중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사재집>을 비롯한 여러 편의 글들을 통해 김정국의 시선이 학문과 동료뿐 아니라 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백성들의 삶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는 날까지 백성의 편함을 위해 노력한 실천적 관료

“다스리는 방도는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사재집> ‘정치는 시대에 맞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데 대한 논설(政貴時宜論)’ 중)는 말은 김정국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일편단심으로 백성의 교화를 마음에 두고 노력했던 슬로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538년(중종 33년) 2월, 마침내 관작이 회복되었다. 망동리에 은거한 지 20여 년 만의 일이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을 편하게 하고 폐단을 제거(便民祛弊)’하는 10여 조목 등 백성의 고통을 감내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이후 풍속이 변해 지방 수령이 거리낌 없이 오로지 악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특진관이 되어 경연에 참여해서는 토목 일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종종에게 직접 아뢰기도 하는데, 그날은 1541년(중종 36년) 4월 4일로, 김정국이 병으로 서거한 5월 20일로부터 약 45일 전의 일이다. 죽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오로지 백성을 걱정했던 것이다. 마침내 김정국은 민생을 돌보며 쌓인 피로 때문에 병에 걸려 신일곱 살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를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애석해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여항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슬퍼하고 애도하였다고 한다. ❶

5월, 따스한 봄에 어울리는 도서 추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 한국문학

책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그 끈이 보이지 않을 뿐. 둘이 마음으로 이어져 있기에 제아무리 억지로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금방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직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책은 살며시 다가와 제 어깨를 내어준다. (115쪽)



헌책방 기담 수집가

윤성근 지음
프시케의숲 | 2021

사서의 추천 글

제목만 보면 무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종류의 책은 아니다. 책방지기인 저자의 표현대로 '주인을 찾아 스스로 나타나 주는 책'에 얹힌 소소하고 따듯한 29편의 실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헌책방에서 중고책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책과 사람에 얹힌 기묘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대부분 절판되었거나 정확한 책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 찾기 어려운 책들이다. 책방 주인은 손님이 제시한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책을 추적하여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례비 대신 책에 얹힌 이야기를 받는 것도 특이하다. 저자는 책 주인이 이 특별한 책을 만났던 시절과 감정을 함께하고 또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책을 읽는 것이 만남이자 인연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 윤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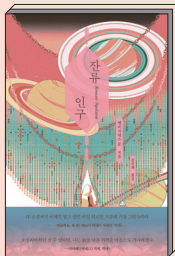
책방지기이자 이야기 수집가.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헌책방의 책더미 속에서 신기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을 찾아 읽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여 IT 회사에 취직했지만, 서른 살 즈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손님으로 자주 다녔던 헌책방에 직원으로 들어갔다. 2007년부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작은 가게를 꾸리고 거기서 책에 둘러싸여 읽고 쓰며 살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 어느 지하생활자의 행복한 책일기> 윤성근 | 2009
<망가진 책에 담긴 기억을 되살리는 : 어느 책 수집가의 기록> 재영 책수선 | 2021
<책 여행자 : 히말라야 도서관에서 유럽 헌책방까지> 김미라 | 2013

• 미국문학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354쪽)



잔류 인구

엘리자베스 문 지음
강선재 옮김 | 푸른숲 | 2021

사서의 추천 글

외계 생명체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누가 인류와 외계 생명체를 중재할 수 있을까? 지구를 떠난 인류가 40년째 거주했던 콜로니 3245.12에서 정착 초기부터 40년 가까이 살아온 오피리아는 남편과 자녀들의 죽음을 겪으며 일흔의 나이가 되었다. 콜로니 거주를 관리하는 심스뱅크사가 사업권 상실을 이유로 새 행정 이주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주 명령을 받는다. 오피리아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나이 많은 여자에게 이주 정책의 걸림돌로 취급되고 추가 이주 비용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에 의해 규정지어진 자신의 무가치와 비효용성을 거부하고, 홀로 잔류하기로 한 오피리아 앞에 행성에 살고 있던 자생종(외계 생명체)이 나타난다.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최초의 인류가 된 오피리아. 인간의 쓸모와 가치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 저자 소개 - 엘리자베스 문(Elizabeth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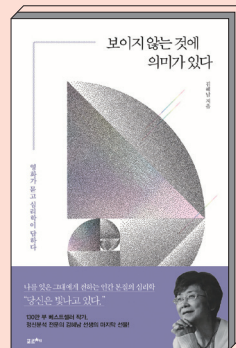
독특한 세계관으로 많은 독자와 평단의 이목을 끌어난 SF 작가로 2003년에 출간된 <어둠의 속도>가 자페인의 시선으로 삶의 정상성에 대해 질문하여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아서 C. 클라크상 최종 결선에 올랐다. 출간 이듬해인 2004년 네뷸러상을 수상했고, 2007년 SF 문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로버트 A. 하인라인상을 수상하였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둠의 속도> 엘리자베스 문 | 2021
<에필로그> 칼 세이건 | 2001
<사피엔스가 장악한 행성> 사이먼 L. 루이스, 마크 A. 매슬린 | 2020

• 인문예술

그렇게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외로운 존재, 어쩌면 팀 버튼의 분신일지도 모를 가위손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상상의 여운을 남긴 채 자신의 세계로 파고든다. 어쩌면 그는 여전히 그림 같은 시골 마을의 언저리에 위치한 검은 성에서 새하얀 눈송이를 뿌리며 그의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지 않을까. (66쪽)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영화가 묻고 심리학이 답하다

김혜남 지음
포르체 | 2021

사서의 추천 글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 속 등장인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정신분석 전문가가 영화 속 인물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한 책이다. 모두 34편의 영화를 5개의 주제로 나누어 개인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서부터 사회적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영화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영화를 보지 않은 독자도 영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속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영화에 나타난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다. 저자는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지금의 우리를 되짚어보고 한 뼘 깊이 이해하며 각자에게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 저자 소개 - 김혜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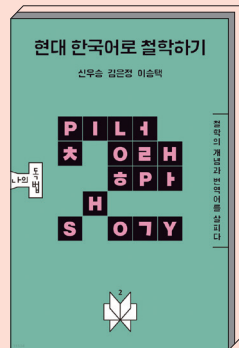
국립정신병원(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이자 김혜남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베스트셀러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심리학이 서른 살에게 답하다>를 비롯해 <어른이 되면 관찰을 줄 알았다>(공저), <오늘을 산다는 것> 등의 책을 펴내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정혜윤 | 2021
<상처를 치유하는 : 감정식당> 이서원 | 2021
<나는 관찰은 사람입니다> 법륜 | 2020

• 인문예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일상 언어로 철학 개념을 다루는 시도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냥 차라리 영어 문헌으로 읽어.”라는 말의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1쪽)



현대 한국어로 철학하기

신우승, 김은정, 이승택 지음
메멘토 | 2022

사서의 추천 글

서양철학 학문 공동체 '전기가오리'를 운영하는 저자 신우승은 철학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들이 현대 한국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철학의 추상성을 모호함으로 오해하게 한다고 말한다. 문제가 되는 번역어를 중심으로 중요한 철학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기존 번역어를 비판하고 대체 번역어를 제시한다. 그러면 다른 두 명의 저자가 대체 번역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저자 신우승이 그 반론을 반영하여 최종 번역어를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형식은 독자들이 제시된 번역어와 그 해석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철학에 대한 열정을 아직까지 간직한 독자라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철학적 논쟁에 참여하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신우승 서양철학을 함께 공부하고, 관련 문헌을 번역 출판하며, 출판물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양철학 학문 공동체 '전기가오리'(www.philo-electro-ray.org)의 운영자이다. 옮긴 책으로 <헤겔의 영혼론> 등이 있다.

김은정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철학을, 동 대학원에서 서양철학을 전공했다. 현재 본(Bonn) 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승택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현재 UCLA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왜 읽을 수 없는가> 지비원 | 2021
<현대 언어철학> 윌리엄 G. 라이컨 | 2021
<지침에 대하여> 버트런드 러셀 | 2018

• 사회과학

일단 재미있으니까 시작한 일이었지만 가끔씩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었는데, 이번에 과일 이야기를 쓰면서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글로 쓴다는 건 일종의 '지식 디저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6쪽)



과일로 읽는 세계사
: 25가지 과일 속에 감춰진 비밀스런 역사

윤덕노 지음
타인의사유 | 2021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25가지 과일을 둘러싼 동서양의 정치와 문화, 역사를 소개한다. 저자는 20여 년간 신문기자와 음식 문화 저술가로 활동하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과일의 역사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전반부에서는 과일에 담긴 사회와 문화를 다룬다. 무역 교류 등에 따라 과일이 전파되어온 양상을 과일의 어원과 이름을 통해 살펴보고, 과일 속 상징과 문화적 관습에 대해 알아본다. 이 책을 읽은 후, 유럽 고급 레스토랑에서 테이블 중앙에 놓인 파인애플을 마주친다면 환영의 메시지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과일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괴혈병 치료제로 사용되어 19세기 영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든 레몬처럼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과일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한다.

👤 저자 소개 - 윤덕노

음식 문화 저술가. 25년 동안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요리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공부했다.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음식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관련 스토리를 발굴해 대중에게 소개해왔다. 저서로는 <음식으로 읽는 로마사>(2020),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2019), <하루 한입 세계사>(2017), <전쟁사에서 건진 별미들>(2016), <음식이 상식이다>(2015) 등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외식의 역사> 윌리엄 시트웰 | 2022
- <성스러운 한 끼> 박경은 | 2020
- <디저트의 모험> 제리 퀸지오 | 2019

• 사회과학

취향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어진 방식을 박차고 자유로운 영토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다. (299쪽)



취향의 경제

유승호 지음
따비 | 2021

사서의 추천 글

지금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우선시되는 취향의 시대이다. 그렇다면 취향은 어떻게 생겨날까? 취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 같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저자는 취향이 어떻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며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대변되는지를 내기물, 열리어답터, 스트리밍, 팬덤, 자동차를 주제로 설명한다. 취향의 개념과 함께 취향이 새로운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나의 취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취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가능하게 한다. 취향의 시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이 경제와 사회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 흐름에 대해서 알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 유승호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와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스타벅스화>, <아르티장>, <서열중독>, <문화도시>, <당신은 소설한가>, <코펜하겐에서 일주일들> 등이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 최명화, 김보라 | 2020
- <그냥 하지 말라> 송길영 | 2021
-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전우성 | 2021

• 자연과학

식물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이는 식물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고 언제인가 아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113쪽)



식물 심고 그림책 읽으며
아이들과 열두 달

이태용 지음
세로 | 2021

사서의 추천 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울해하고 있는 요즘, 식물이 품고 있는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즐거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저자는 어린이와 함께 식물을 심고 그림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원예 활동가이다. 저자의 그림책, 원예 수업 경험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함께 심으면 좋은 식물 그리고 그 식물과 관련된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과 나는 대화를 하고 있어 이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이들을 향한 저자의 따뜻한 마음과 아이들의 꾸밈없는 순수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부록에 수업 계획서, 그림책 정보, 수업에 쓰이는 원예 식물 정보를 깔끔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놓아서 따라 쓸 수 있게 하였다. 아이들에게 생명과 돌봄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부모와 교사들뿐 아니라 식물을 키우고 싶으나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쉽고 재미있는 원예 수업이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 이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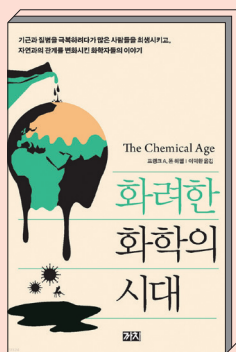
'책공작소 맘껏'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교육청 교육복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식물 읽어주는 아빠>, <두근두근 꽃시장 나들이>, <똑똑 융합과학 씨, 식물을 만나요>가 있고, <재미있는 식물 산책 도감>을 우리말로 옮겼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자연을 사랑하는 법> 이수운 | 2022
- <식물학자의 노트> 신혜우 | 2021
- <식물의 책> 이소영 | 2019

• 자연과학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망원경을 거꾸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우리는 먼저 자만과 욕심으로 인간을 바라보았고, 하루나 일 년의 문제만을 바라보았고, 그런 후에는 지극히 왜곡된 시각으로 지구와 지구가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마어마한 현실이고,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314쪽)



화려한 화학의 시대

프랭크 A. 폰 히펠 지음
이덕한 옮김 | 까치 | 2021

사서의 추천 글

모든 과학적 성공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화학도 예외는 아니다. 화학적 성공의 양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치클론이 아닐까. 화학무기로 개발된 치클론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치클론 B로 탈바꿈한다. 치클론 B는 이(louse)는 물론 이의 알까지 한 번에 없애주어 해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시 화학무기가 되어 유대인을 학살하는 가스실의 가스로 악명을 떨친다. 한편 기적의 살충제 DDT는 인기 상품이 되었으나, DDT가 보편화되면서 곤충들은 곧 DDT에 대한 내성을 키웠고, 야생에 마구 뿌린 DDT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 책은 방대한 사료를 통해 역사 속 기근과 전염병 퇴치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이 어떻게 화학무기가 되어 전쟁에 활용되었는지 그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다. 인간을 위한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이러니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책이다.

👤 저자 소개 - 프랭크 A. 폰 히펠(Frank A. von Hippel)

노던애리조나 대학교 환경독성학과 교수. 20개국 이상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강의를 했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과학사 팟캐스트(Science History Podcast)'를 운영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 2011
- <화학 연대기> 장홍제 | 2021
- <화학, 인문과 침단을 품다> 전창림 | 2019

김보희 편집자와

대림도서관

함께 산책할까요?



ㅣ 김보희 ㅣ

17년 차 출판 편집자. 출판사 휴머니스트의 시리즈 브랜드 '자기만의 방'에서 책을 만들며 출판 기획과 편집 강의, 에세이 쓰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만든 책으로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똥 고르듯 살고 싶다>,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등이 있다.



걷는 걸 좋아합니다. 평일에는 출근 전 새벽녘에, 주말에는 늦은 아침을 먹은 후 걷습니다. 걷기 친구는 늘 짝꿍(남편)이에요. 보통은 3~4킬로미터를 한 시간가량 걷는데 특별한 목적지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출발해요. 익숙한 골목들을 골목대장처럼 씩씩하게 누비며 걷다가, 낯선 골목을 발견하면 걸음을 늦추고 마치 작은 탐험을 나선 듯 요리조리 관찰합니다.

글 김보희 사진 김보희, 대림도서관

자주 걷다 보니 동네 곳곳에 저만의 산책 코스도 생겼어요. 코스마다 나름 애칭도 붙였습니다. 8차선 한가운데에 긴 바게트 모양처럼 자리한 공원 쪽으로 걷는 코스는 '바게트 길', 키가 큰 벚나무와 너도밤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어 마치 숲과 같은 길이 있는 코스는 '다람쥐 길' 등 우리만의 이름이 있답니다. 코스 중에는 '도서관 길'도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어느 코스로 걸을지 결정하는데요. "도서관 길로 걸을까?" 하는 날은 평소보다 가볍게 걷고 싶은 때입니다. 도서관에 들르지 않고 돌아오면 15분 가량 걸리는 짧은 코스거든요. 쌓여 있는 일로 여유롭게 걸을 수는 없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때 이 길을 택하곤 합니다.

1. 김보희 편집자가 대림도서관으로 향할 때 지나는 산책길.
2. 도서관 1층에 있는 자료검색대.
3. 1층 개방형 열람실의 전경.



도서관 길로 걷기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 조금만 걸으면 사철나무 사이로 샛길이 나옵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 높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공원이 눈앞에 펼쳐져요. 봄에는 벚꽃과 영산홍이, 여름이면 장미가,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차례로 피었다가 지는 사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 이 공원에 오면 한눈에 알 거예요. 어떤 손길들이 부지런히 이곳을 가꾸고 있다는 것을요.

공원의 끝은 트랙이 있는 운동장의 모서리에 해당하는 쪽문으로 연결됩니다. 평소에는 운동 삼아 빙글빙글 돌며 걸거나 뛰는 사람들로, 주말이면 각종 바퀴 달린 탈것을 끌고 밀고 타고 나온 아이들로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느긋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 운동장 정문을 향해 걸어 나오면, 드디어 왼편으로 이 산책 코스 이름의 주인공 '도서관'이 나옵니다.

이곳의 이름은 '대림도서관'이에요. 이 동네로 이사 온 이듬해에 개관한 14년쯤 된 아담한 도서관입니다. 당시에 집에서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생긴다는 이야길 듣고 얼마나 설렘인지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결국 책으로 먹고사는 일을 하는 저에겐 마치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편한 동네 친구는 그렇잖아요. 특별한 이벤트나 목적이 없어도 "잠깐 볼까?" 하고 만날 수 있고, 특별한 주제 없이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넘나들며 실컷 떠들다가 아쉬움도 다음

만날 약속도 없이 담백하게 헤어질 수 있고요.

이 도서관이 저에겐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떤 책을 빌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가기보다 산책길에 들러 이 책에서 저 책으로 넘나들다가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을 빌리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서가 사이를 산책하듯 걸어 다니며 둘러보다가 빈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도서관에 들어가지도 않고 산책의 반환점 삼아 돌아오는 날도 있어요. 친한 동네 친구를 만나듯요.

서가 산책의 시작

책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을 거라고들 생각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책은 좋아하지만, 많이 읽은 편은 아니거든요. 서점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기억이 시작된 순간부터 늘 곁에 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아버지가 일하는 서점에 놀러 가곤 했는데, 퇴근시간을 기다리며 책들에 둘러싸여 몇 시간씩 보냈어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코너에서 시작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서점 곳곳을 누비고 다녔어요. 읽는 것보다는 서가 사이를 걸어 다니며 눈으로 책들을 훑어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목이 궁금하게 해서, 표지 색깔이 예뻐서, 재밌어 보여서, 멋져 보여서, 이유 없이 그냥 눈에 띄는 책들을 팔랑팔랑 넘겨보곤 했지요. 우연히 발견한 책 중



- 1, 2. 리모델링 후 훨씬 정갈해진 3층 일반자료실 전경.
3. 독서 후 햇살을 받으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5층 옥상 테라스.
4. 2층 어린이·유아자료실. 위층까지 이어진 높은 책장이 눈길을 끈다.
5. 김보희 편집자가 만든 휴머니스트 '자기만의 방' 시리즈 책들.

한 권은 아버지가 꼭 사주었습니다. 어떤 책을 고르든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때문에 저는 책 읽는 재미보다 책 고르는 재미에 먼저 눈을 뒀지요.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동네 도서관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의 집과 한 블록 거리에 시립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도서관 열람실에서 만났어요. 명목은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자였는데, 그럴 리가요. 교환일기를 주고받으며 시시덕거리거나, 만화책을 돌려보거나, 도서관 사물함에 가방을 넣어두고 바로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수다 떠느라 도서관 의자에 앉아보지도 않고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니다. 도서관은 마치 아지트 같았어요.

노는 데 마음을 쏟느라 바빴지만, 틈틈이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을 펼쳐보곤 했어요. 모든 것이 음소거 된 듯한 그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에 띄는 책들을 펼쳐보았지만, 기준이 한 가지 더 생겼는데요. 학교 공부와는 전혀 관련 없을 법한 책들만 골라봤다는 거예요. 특히 소설과 여행서를 좋아했어요. 서가 앞에 그 대로 서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좁고 짧은 서가 사이의 길이 세계 곳곳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책들에 둘러싸인 고요한 여행. 그게 혼자 떠난 저의 첫 여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산책

요즘 도서관 길 공원에는 벚꽃이 지고 영산홍이 한창입니다. 눈이 부시게 선명한 꽃나무 사이를 걸어 도서관에 갔어요. 몇 해 전 리모델링 공사를 한 도서관은 오늘 같은 날 특히 예쁘거든요. 해가 기우는 늦은 오후면 눈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곳곳으로 은은하게 햇살이 떨어지고, 창밖의 나뭇가지와 나뭇잎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은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줘요. 서가 위에, 곁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식물들 덕분에 더 그런 듯해요.

1층 서가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엔 주로 새로 들어온 책들이 꽂혀 있는데 올 때마다 서점에서는 보지 못했던, 놓쳤으면 후회했을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명작가의 첫 책>이라는 토머스 울프의 글쓰기 강의를 묶은 책을 만났어요. 판권을 보니 지난해 가을에 출간되었네요. 이 작가는 <지니어스>라는 영화로 알게 되었어요. 피츠제럴드, 헤밍웨이 등의 책을 만든 명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와 토머스 울프가 첫 책을 출간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였는데, 100여 년 전에도 온갖 고비를 넘어야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더라고요. 영화를 보고는 토머스 울프라는 작가가 궁금했어요. 무명에서 단숨에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대림도서관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모두를 환대하는 도서관', '개방성과 확장성을 높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북 큐레이션, 지역의 예술가 등 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기획, 시민작가를 양성하는 기록공작소, 시민활동가 양성 등 시민들과 호흡하고 지역의 일을 함께 고민하며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으로 멋진 미래를 여는 생활공동체 도서관'이다.



- 📍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7(대림동)
- ☎ 전화 : 02-828-3700
- 🕒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어린이·유아자료실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 📅 휴관일 :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짧고 강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국내엔 소개된 책이 거의 없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서가 산책 덕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을 나와 다시 걸읍니다. “좋은 계절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봄날이에요. 봄 햇살에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듯합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 다비드 르 브르통이 쓴 <걷기예찬>의 첫 문장을 떠올립니다. 서가 산책에 이만큼 어울리는 문장이 또 있을까요. 어서 집에 돌아가 산책이 발견해준 책을 읽고 싶습니다. 책을 든 손을 힘차게 휘저으며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봅니다. ❶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는 모두의 도서관

미국 공공도서관

글 박영애 사진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생애 처음 배낭 하나 메고 미국 4개 도시(시카고-시애틀-라스베이거스-뉴욕)를 홀로 여행하게 되었을 당시, 여행의 목적은 바로 미국 도서관 투어, 오직 하나였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그리고 다시 동부로 돌아오는 이 무모한 여행은 오로지 세계 최고로 손꼽는 미국 공공도서관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다.

1. 시애틀 중앙도서관 1층 내부 전경.

| 박영애 |

26년 차 공공도서관 사서(사무관). 현재 의정부정보도서관에서 근무 중이다. 28개 도시, 70개 해외 도서관을 여행하면서 '도서관의 가치는 공간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축과 도서관을 이어주는 도서관 공간 전문가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SEATTLE CENTRAL LIBRARY

| | |
|-------------------------|---|
| 0 | 1 |
| Seattle Central Library | |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

시애틀 중앙도서관

시애틀 중앙도서관(이하 시애틀 도서관)은 독특한 건물 외관과 내부 공간 구성으로 인해 건축계는 물론 도서관계에서도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은 도서관으로 손에 꼽히는 곳이다. 시애틀 도서관은 도시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도서관이라는 칭송에 걸맞게 2004년 개관 첫해에 23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미국의 건축 평론가인 폴 골드버거(Paul Goldberger)는 시애틀 도서관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도서관”이라고 칭찬했다.

세계적인 건축가 램 콜하스의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메트로폴리탄 건축사무소)는 1998년 시애틀 도서관 건립을 의뢰받고 도서관의 두 가지 기능에 주목했다. 책이라는 매체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배치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공공 영역 및 복지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의 기능, 이 두 가지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OMA는 도서관의 장서가 점차 늘어날수록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공복지를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가는 점을 처음부터 고려하여 복지 공간의 축소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실제로 도서관 축이 중요하게 여긴 서고의 필요 공간은 전체 공간의 약 32%로 구성했고, 공간의 유연성과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장서가 늘어나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 축소되지 않고 더 많은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시애틀의 다운타운은 플랫한 형태가 아닌 경사지에 격자 블록들이 질서정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며, 블록마다 두세 개의 빌딩들이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다. 시애틀 도서관 역시 경사지의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고, 도시가 격자로 되어 있는 덕에 어느 블록에서 오더라도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가 있다. 경사지에 자리하여 출입구에 따라 시작 층이 다르며 낮은 레벨에 위치한 4번가 출입구는 1층으로 연결되고, 5번가 출입구는 3층으로 연결된다.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오디오리엄, 대출 반납 데스크가 있고, 2층은 스태프 전용 공간이며, 3층은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애틀 도서관의 시그니처 공간인 ‘리빙룸(Living Room)’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센터(Teen Center)’도 한쪽에 자리하고 있다.

3층 출입구 맞은편의 아주 긴 체크인 데스크 뒤편에는 여행 전 수집한 자료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1층에서 3층까지 연결된 완전 개방형의 공연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3층 공간은 5층까지 개방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로 공연장은 1층에서 5층까지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벽히 오픈된 공연장은 도서관의 가치를 다시 묻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층은 강렬한 레드 컬러의 공간으로 다양한 역할의 미팅룸이 마련되어 있으며, 5층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의 최고 자랑거리는 6층부터 9층까지 이어지는 논픽션 코너인 '북스 스파이럴(Books Spiral)'이다. 살짝 기울어진 경사가 나선을 그리면서 4개 층을 하나로 연결해주는데, 이 연결되는 동선은 분류 시스템에 따라 올라가면서 정리된 도서들을 만나게 되며,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처럼 느껴진다. 서가를 지나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면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독서방(Reading Room)'을 만나게 된다. 이 모든 공간들은 모두 계단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구석에 있는 데 반해 에스컬레이터는 이 공간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노란 형광색으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게 된다.

시애틀 도서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인들의 모습은 국내 도서관에서는 보기 어려

운 낯선 풍경으로 다가온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도서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도 이제는 누구나 환대하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 |
|----------------------------------|---|
| 0 | 2 |
|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 |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도서관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

'모든 시민이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모토로 삼은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중앙도서관인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 시카고의 다운타운 스테이트가에 위치한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은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10층 건물로 1970년에 짓기 시작하여 1991년에 완공되었다.

도서관은 건물 어느 쪽이든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서남북 사면에 출입구가 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중앙이 지하 로비와 2층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 엄숙함과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로비의 3개 벽면에는 'Read, Learn, Discover(읽고, 배우고, 발견하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 시카고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로비에는 '신디 프리츠커 오디오토리움', '사

1. 강렬한 레드 컬러로 디자인한 시애틀 도서관 4층 공간에는 미팅룸이 마련되어 있다.
2. 시애틀 도서관의 시그니처 공간인 '리빙룸'으로 높은 천장과 다이아몬드 창을 통한 자연광이 인상적이다.

우스홀', '다목적룸', '비디오 극장'이 있으며, 접근이 자유롭고 이용자가 많은 1층에는 안내 데스크와 10대를 위한 자료실 'YOUmedia'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최근 들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데 비해 미국 공공도서관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도서관의 역할 중 교육적 기능을 위해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도 2009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인 학습공간으로 'YOUmedia'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YOUmedia'에는 청소년용 자료뿐만 아니라 랩톱, 데스크톱, 3D 프린터, 미디어 제작 기구, 소프트웨어, VR 장비 등이 갖춰져 있다. 'YOUmedia'는 청소년에게 다른 또래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공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제공한다.

도서관 2층에는 시카고 공공도서관 건립의 모태가 된 토머스 휴스의 이름을 딴 '토머스

휴스 어린이 자료실'이 있고 3층에는 회원 가입, 상호대차, 도서 대출 및 반납, 서클레이션 데스크, 복사실, 컴퓨터 커먼스, 신문 및 정기간행물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모토로라, 시카고 공공도서관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3년에 오픈한 메이커랩(Maker Lab)이 있다. 3층에서 8층까지는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주제별 자료실과 열람실 위치에 맞게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되어 있다.

5층은 정부 출판물, 지역 참고자료, 사회과학 간행물, 음성도서센터, 6층은 사회과학 및 역사, 7층은 문학과 언어, 시카고 작가 공간, 8층은 시각공연예술, 청음영상센터, 음악 연습실, 9층은 전시회나 회의를 위한 공간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인 및

단체 이벤트 공간, 특별 컬렉션과 보존관, 해럴드 워싱턴 아카이브와 컬렉션, 특별 컬렉션 전시홀 '겨울 정원(Winter Garden)'이 있으며, 10층은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서관 건축물보다 거리 곳곳에서 마주쳤던 노숙인들이 도서관 내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다.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로서의 도서관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⑥

3.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 9층 특별 컬렉션 전시홀 '겨울 정원(Winter Garden)', 마치 식물원에 온 듯 심신이 차분해진다.
4. 일반 열람실 전경. 도서 자료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중앙도서관인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의 외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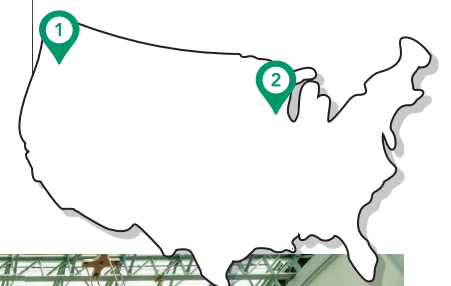
미국 도서관 정보

01. 시애틀 중앙도서관 (Seattle Central Library)

- 🕒 월~화요일/금~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일요일 낮 12시~오후 6시
- 📍 1000 Fourth Ave., Seattle, WA 98104, USA

02.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 🕒 월~목요일 오전 9시~오후 7시,
금~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 400 S. State Street Chicago, IL 60605, USA



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공존의 씨앗이 되는 도서관

책과 함께 즐기는 자연의 풍요로움

글 류민정

벤치나 공원 등 자연에서 하는 독서가 유독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책을 읽는 분위기와 장소가 활자와 만나 마음의 위안과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내리쬐는 햇살, 살랑이는 바람 등은 읽고 있는 책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돕는다. 그래서인지 최근 도서관은 조용하고 엄숙한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추세다. 특히 숲속이나 도심 생태공원 안에 자리 잡은 도서관은 편안한 독서 공간과 쉼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의미를 전한다.



| 류민정 |

그림책 스토리텔링 교사이자 자유기고가이다. 주로 기업 사보와 각종 웹진에 인터뷰나 취재 원고를 쓴다. 아이들과 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며, 취재로 만난 사람과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느낀다.



1



2



3

1. 자연과 어우러진 천왕산 책쉼터 입구.
 2. 나무로 된 지붕 아래에서 숲을 보며 독서를 즐길 수 있다.
 3. 책쉼터 야외에 설치된 해먹.
- (출처 : 서울시 구로구청)

천왕산 책쉼터

지역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자연과의 공존

천왕산 책쉼터는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원 내 도서관 중 네 번째로 지어진 공간으로, 2022년 3월 23일 개관했다. 구로구 향동 천왕도시자연공원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약 3000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다. 열람실에서 통창을 바라보면 천왕산 숲이 한눈에 들어오고, 한쪽에 마룻바닥이 마련되어 있어 마치 숲속 펜션에 온 듯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천왕산 책쉼터의 운영을 맡은 '학교너머더큰학교'는 책과 숲, 사람과 자연, 세대 간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먼저 쓰레기 줍기 봉사단 '천왕산 레인저스'를 결성하고, 마트

팜센터(도시농업체험장)의 도움을 받아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생물이 살아가는 천왕산의 자연을 주민들이 함께 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책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환경과 기후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문화 행사나 기후 위기 포럼을 진행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강좌도 지원한다. 지난 4월 2일 천왕산 책쉼터는 식목 행사 겸 개관식인 '해뿔제'를 개최해 숲놀이·책놀이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도서 복합문화공간인 동시에 자연과 마을이 공존하는 공동체의 발판이 될 천왕산 책쉼터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익산 유천도서관

생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도심 속 자연 공간
2022년 3월 11일 개관한 유천도서관은 기획 단계부터 '생태 환경 특화 도서관'을 테마로 지어졌다. 테마에 걸맞게 유천 생태습지공원 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건물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나 제로 에너지 기술 등 친환경 건축 방식을 활용했다. 현재 약 1만 5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 자료실뿐만 아니라 생태 자료 전시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생태 자료실에는 생태 관련 서적이 연령대에 맞춰 골고루 구성되어 있어 유천도서관을 찾는 모든 사람이 생태 환경에 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층마다 설치된 나비 조형물과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자연과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꾸며진 북스테이

공간 등 도서관 곳곳에는 각자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옥상 생태 학습장 하늘마당에서는 야외 독서도 가능하며, 생태습지공원이 한눈에 들어와 도서관 내에서도 자연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유천도서관에서는 2022년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시를 줍다', 'K할매 금자연니 소꿉놀이터', '쉽게 배우는 서양사'를 진행하며, 4월에는 생태 환경을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흙 가드닝' 행사도 운영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생태탐방',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험 교실', '친환경 전래놀이터'를 진행하며 전 세대에게 도심 속 생태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1. 유천 생태습지공원과 가까이에 위치한 유천도서관.
 2. 숲을 콘셉트로 꾸며진 열람실 내부.
 3. 우드 톤 인테리어와 녹색 식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출처 : 익산 유천도서관)



4. 마루로 되어 있는 열람실 내부.
 5. 원목을 사용한 책상과 책꽂이들.
 6. 배봉산 숲속 도서관 전경.
- (출처 : 배봉산 숲속 도서관)

배봉산 숲속 도서관

자연, 일상과 도서관을 잇다

서울시립대학교 뒤편에 위치한 배봉산 근린공원 안에는 아늑한 숲속 도서관이 있다. 배봉산 숲속 도서관은 원래 30년 동안 낡은 관리실과 화장실이 있던 자리였지만 화장실을 개축할 시기에 구청에서 직접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동대문구 전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오가는 산책길을 보다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0월 개관한 배봉산 숲속 도서관에는 유난히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다. 그래서인지 100평 남짓한 넓은 열람실에는 어린아이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뒤섞여 책을 읽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뒷마당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1층에는 놀이시설이 갖춰진 공동 육아방이 있어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도서관과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곳만의 특징이자 큰 장점이다. 개관 후 1년 동안 10만 명가량의 방문객이 다녀간 배봉산 숲속 도서관은 개관 일에 맞춰 숲속 인문학 강좌나 SNS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 4월에는 주간 행사로 '문학 속 놀이 배우기'나 '문학 속 생활소품 만들기'를 통해 책과 자연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했다. 숲속 도서관은 이제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하고 경험하며 진정한 생태를 이루고 있다. ⑥

‘책’은 읽고 싶기 전에 갖고 싶어야 해요

<마법천자문> 시리즈 최초 기획자

은지영 *Eun-Jiyoung*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영상 매체와의 경쟁에서 20년 동안 베스트 셀러의 자리를 지킨 책이 있다. 유난히 경쟁이 심한 아동 도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유지 중인 <마법천자문> 시리즈다. 마블 캐릭터처럼 <마법천자문>의 브랜드화를 꿈꾼다는 이 책의 최초 기획자 은지영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했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판사 북이십일의 아동 콘텐츠 사업 파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은지영입니다. <마법천자문> 시리즈,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이시원의 영어 대모험> 시리즈 등 주로 아동 학습만화 시리즈를 출간하는 일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지식 교양 시리즈를 다양하게 기획하며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20여 년간 출간되고 있는 <마법천자문> 시리즈의 기획자이십니다. <마법천자문>은 어떤 책인가요?

<마법천자문>은 재미와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어린이 출판 시장에 학습만화 열풍, 교육 시장에 한자 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2003년 이후 52권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 그사이 3D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출판 기획자로 활동하게 되셨는지요?

출판사 북이십일은 저의 첫 직장으로 2002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출판 기획자라는 포지션보다는 편집자라는 말이 흔하게 통용되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저에게는 기획자라는 포지션을 주셨습니다. 신입사원이었으니 당연히 편집도 배웠지만, 제 머릿속에서 저는 편집자가 아니라 출판 기획자로서, 성공한 출판 기획을 위해서는 편집도 꼭 알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과 기획을 동시에 하며, 출판계에 처음 들어온 2002년부터 출판 기획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4.

도서 출판에 있어서 편집자와 기획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편집자는 텍스트를 좀 더 가독성 있게 정리하고, 독자들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화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정, 교열도 잘 봐야 하고 원고의 방향을 정한 다든가 도서 출판 작가와 의견 조율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획자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서서 출판 시장을 마케팅적으로 바라보며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나 독자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나 니즈를 캐치해 마케팅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저자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한마디로 편집자는 텍스트 중심으로 사고하고, 기획자는 출판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평소 책을 좋아하셨는지요. 그리고 수많은 도서 분야 중 현재의 에듀테인먼트 분야에 몸담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책은 특별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문학, 인문서, 교양 과학서, 경제경영서도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합니다. 지금은 만화 콘텐츠를 웹으로 주로 접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책으로 만화를 접했습니다. 멋진 그림과 놀라운 스토리의 만화를 보면서 만화가 들은 분명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존경심이 저절로 생겼고, 이후 사범대학에 가게 되면서 만화를 교육에 접목시킬 방법을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재미있는 공부, 아이들 삶에 도움이 되는 공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외국어 수업에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석사 논문까지 쓰면서 자연스럽게 에듀테인먼트에 익숙해졌습니다.

6.

다양한 교육 콘텐츠 분야 중 어떻게 한자 학습 관련 출판물을 기획하게 되셨는지요?

2002년 즈음 중국이 세계경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출판 시장에서도 중국어, 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저는 TF팀에 근무했던 때라, 팀 안에서 한자를 초 등 출판물로 기획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자는 중고등학교 때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달달 외우기만 했는데, 막상 대학 공부를 하며, 또 직장 생활을 하며 한자가 논리적 사고, 지식 습득 등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출판물을 살펴보니 여전히 달달 외우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때 저는 한자를 제가 어릴 때처럼 배워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한자의 상형문자적 특징과 제가 좋아하는 만화 및 판타지 영화의 문법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 만화, 판타지(마법), 이야기라는 몇몇 아이디어들의 단순한 조합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7.

<마법천자문>은 철저한 기획력으로 성공한 출판물입니다. 기존 한자 학습 콘텐츠들과 어떤 차이가 성공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존의 학습 콘텐츠들에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몇십 자, 몇백 자의 한자를 ‘문형 연습’ 식으로 반복시켰습니다. 그런 문형 연습 학습이 아닌, 이야기를 결합시킨 한자 학습 콘텐츠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죠. 아마 <마법천자문>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그리고 그림체는 당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출판 만화라서 한계가 있었지



<마법천자문> 캐릭터를 활용해 출시된 다양한 상품들.



은지영 기획자의 20년 내공이 쌓여 있는 <마법천자문> 시리즈 전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만,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림이라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또 한 권에 수십, 수백 자의 학습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대신 학습량을 대폭 줄여 권당 20자 한자의 매력을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야기 자체를 마법 이야기로 꾸며, 한자가 학습 대상이 아닌 이야기의 마법 요소로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했지요. 특히 권당 20자로 제한을 두고, 탄탄한 스토리를 접목시킨 것이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8.

시리즈 도서의 기획 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모든 것들의 패턴화, 정형화를 통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패턴화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가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리즈 기획에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정형화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에, 변주는 시리즈의 장기화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것은 초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시리즈가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결정하고 마련해야 장기 시리즈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9.

<마법천자문> 외에 지금까지 만든 책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가장 아끼는 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인서도 만들고 그림책, 동화책, 심지어 성인 어학서도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학습만화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대표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이시원의 영여 대모험> 시리즈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책은 그래도 역시 <마법천자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기도 했고, 그 쉽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중에서도 한 권을 고르려면 아마 22권일 것입니다. 22권을 기점으로 새로운 작가님을 모시고 이어가는 첫 권이어서 무척 걱정했는데, 다행히 독자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52권까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10.

도서 기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반드시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기획은 출판 비즈니스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딱딱한 얘기지만, 사실 도서 기획자는 '좋은 책'이라는 막연한 목표나 획기적인 콘셉팅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많이 팔고 많은 이익을 내겠다는 비즈니스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즉 기획 단계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넓은 의미의 마케터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션, 시장 조사, 콘셉팅, 디벨롭먼트, 원가 설계 및 정가 책정, 마케팅 계획까지 기획자의 업무와 역량의 범위를 넓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

도서관과 출판사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혹은 도서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책에는 비즈니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안 팔리지만 만들어야 할 책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안 팔린다

고 해서 필요 없는 책들은 아닌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지원 아래 책들이 만들어지고 도서관을 통해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이지만 출판 비즈니스도 나날이 경쟁이 격화되며 다양성은 줄어들고 잘 팔릴 것 같은 형태와 내용들의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아래 출판사와 도서관이 다양한 기획의 좋은 책들을 만들고 공급해서,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이외에도 다양하게 책들을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2.

이사님처럼 도서 출판 기획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도서 출판 기획자로서의 보람은 제가 기획한 책이 수많은 사람에게 선택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삶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시장에서, 독자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얼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소통하려는 노력이, 기획자라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것들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이든 드라마든, 기획자라면 무언가를 접할 때 그 이유를 찾아 내 일에 적용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

<마법천자문>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0년 동안 <마법천자문>을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독자들이 없었다면 <마법천자문>도 없었겠지요. <마법천자문>도 한 인간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요. 계속해서 독자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디즈니, 마블처럼 100년을 가는 브랜드는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천자문>도 독자들과 함께 100년을 가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❶

|은지영|

출판사 북이십일의 아동 콘텐츠 사업 파트 이사로 재직 중이다. <마법천자문> 시리즈의 최초 기획자로, 현재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이시원의 영여 대모험> 시리즈 등의 학습 만화와 다양한 어린이 교양 도서를 기획, 출간하고 있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마법천자문> 캐릭터가 출판사 앞에 세워져 있다.

채색되기 전 단계인 <마법천자문>의 스케치본.



은지영 기획자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된 천재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



1920년 가을, 전체 주민이라고 해봐야 수백 명 남짓한 오스트리아의 외진 시골 마을 트라텐바흐의 허름한 초등학교에 깡마른 체구의 남자 교사가 새로 부임한다. 도시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선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교실에 들어선 이 수상한 교사는 교탁 위에 대수학 교재를 올려놨다. 어린 학생들은 첫 수업으로 꽃 이름이나 전통 명절의 유래에 대해서 배우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는 과묵한 표정으로 칠판에 수학 기호들을 쓰기 시작했다.

글 윤성근 사진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출판사

Ludwig Wittgenstein

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18세 무렵 모습.
2. 노르웨이 솔덴(Skjolden) 마을의 소나무로 만든 비트겐슈타인 기념물. 한쪽에는 손 모양을, 반대 쪽에는 입 모양을 조각했다.
3.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비트겐슈타인의 군인 신분증.



3

단 한 권의 책으로 최고의 철학자가 되다

이 수상한 교사의 이름은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그는 오스트리아는 물론 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대기업을 운영하는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다. 가문의 저택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10대나 놓여 있어서 많은 음악가가 드나들었다. 브람스, 슈트라우스, 말러, 그리고 파블로 카잘스도 비트겐슈타인 저택에 자주 방문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비트겐슈타인은 일찌감치 천재가 갖추어야 할 여러 소양을 드러냈다. 비상한 두뇌와 예민한 성격은 이미 대학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를 유명 인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트겐슈타인이 대학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학문은 최신 기술인 항공기 엔진 설계 분야였다. 거침없이 넓어지는 천재의 지적 영역은 곧 수학과 철학에까지 이르렀다.

1908년, 맨체스터 대학에서 항공학을 공부하던 비트겐슈타인은 방학을 이용해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과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함께 쓴 책 <수학 원리>를 읽는다. 이 책은 너무 난해해서 내용 이해는 둘째치고 완독한 사람조차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을 읽고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책 내용 중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얼마 뒤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찾아간다. 두 천재의 첫 만남은 이렇듯 스승과 제자였으나 곧 둘의 관계는 함께 철학을 탐구하는 동료로, 그리고 마지막엔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에게 배우는 위치로 바뀐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쓴 글을 보고 단박에 그가 천재임을 직감하여 항공학보다는 철학 책 쓰기를 권한다.

러셀의 격려에 힘입어 논리학 연구에 힘을 쏟던 중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비트겐슈타인은 포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하지만 포탄이 날아드는 참호 속에서도 철학을 향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20세기 최고의 철학 저서로 불리는 <논리-철학 논고>는 바로 이때 초고가 완성된 것이다. 100쪽이 안 되는 이 작은 책 한 권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일약 철학계 슈퍼스타가 됐다.

슈퍼스타 철학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철학의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믿은 비트겐슈타인은 학문 탐구의 세계를 떠나 구도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제아무리 외진 마을에 틀어박혀 산다고 하더라도 젊은 천재의 명성과 인기는 그를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당시 비트겐슈타인은 부친으

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인해 유럽 최고의 부자 중 하나였다. 그는 세상 모든 것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기에 가진 돈을 다른 가족과 예술가들에게 나눠준 다음 혼자 시골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괴짜 천재는 고즈넉한 작은 마을 생활에 좀처럼 적응할 수 없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하루의 첫 두 시간은 언제나 대수학을 가르쳤다. 당연히 어린 학생들은 복잡한 수식을 쉽게 따라오지 못했다.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교사들이 흔히 그랬듯이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작은 소음에도 힘들어했던 비트겐슈타인은 교사 숙소에서 지내지 않고 학교 부엌에 침상을 깔아놓고 잠을 자곤 했다. 학생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도시에서는 천재일지 몰라도 여기선 그저 괴팍한 사람일 뿐이었다.

날이 갈수록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다. 1926년, 급기야 사건이 터지고 만다. 당시 11세였던 요제프 하우트바우어라는 학생이 비트겐슈타인에게 맞아 실신한 것이다. 지병이 있던 학생이었기에 이 사건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큰 소동으로 번졌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마을을 떠나고 없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천재의 여정

시골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도망치듯 청산한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사이 두 번째 전쟁이 터졌고 천재의 임무는 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세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뿐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열정적으로 글을 썼고, 연구를 거듭하는 한편 건축 설계에까지 영역을 넓혔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철학자가 지은 집 ‘비트겐슈타인 하우스(Haus Wittgenstein)’는 1928년에 완공됐는데, 설계자의 완벽주의 성향 탓에 문 손잡이 디자인에만 1년이 걸렸을 정도로 정교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러셀의 서문이 달린 <논리-철학 논고>는 1921년에 출판됐다. 이 책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다.



1. 현재까지 회자되는 ‘오리토끼’ 그림.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에서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이 보이는지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2.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묘지.



1 윤성근 | 개인 서점을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책방 기담 수집가>, <작은 책방 꾸리는 법>, <서점의 말들> 등이 있다.

첫째,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다. 둘째,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철학 사이에 간혀 있는 듯 보였다. 이러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책의 작업은 더뎠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1951년, 암으로 6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비트겐슈타인의 두 번째 책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생전에 정리했던 원고가 남아 있어 그것을 엮어 1953년에 <철학적 탐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의 1부는 비트겐슈타인이 출판을 목적으로 1946년까지 직접 쓴 원고이며 2부는 남겨진 원고를 바탕으로 편집자가 정리하여 완성했다. <철학적 탐구>는 세계를 정확하게 해석하려 했

던 <논리-철학 논고>와는 다르게 언어 자체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게임 이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책에도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일부 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을 일컬어 이마누엘 칸트 이후 금세기 최고의 철학자라는 말을 덧붙였다.

비트겐슈타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50년, 러셀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철학자임에도 인도주의적 이상과 사상의 자유를 옹호했던 가치를 여러 작품에서 인정받은 외국의 수상이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였지만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자신보다 뛰어났음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은 말로 평가했다. “내가 아는 전통적인 천재의 예로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 그는 열정적이고, 심오하고, 강렬하며, 지배적이다.” ❶



3. 1928년에 완공된 비트겐슈타인 하우스. 그는 철학과 수학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독립서점 산책

경주 독립서점
‘소소밀밀’그림책에
따스한 온정을 담다

글 장성욱 사진 안호성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언제나 북적이는 경주의 황리단길.
길 하나만 벗어나면 동화 같은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쁜 일상에 잠시 잊고 있었던 동심을 일깨워주면서
따스한 온정을 전해주는 곳, 바로 경주의 그림책 전문
서점 ‘소소밀밀’이다.

‘소소밀밀’은 글 쓰는 아내와 그림 그리는 남편이 운영하는 독립서점이다.

소소 아줌마와 밀밀 아저씨

“글 작가 ‘소소 아줌마’와 그림 작가 ‘밀밀 아저씨’는 귀여운 딸 ‘소밀’이와 함께 그림 책방 ‘소소밀밀’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경주시 황남동에 자리한 그림책 서점 ‘소소밀밀’을 떠올리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이 문장이 절로 떠오른다.

활기 넘치는 황리단길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리 차분하고, 그림책 속 아기자기한 서점을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곳. 경주 대릉원을 정면에 마주한 그림책 서점 ‘소소밀밀’에 가면 글 쓰는 ‘소소 아줌마’ 김지혜 대표와 그림 그리는 ‘밀밀 아저씨’ 구서보 대표가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준다.

2016년 8월 경주시 황성동에 처음 문을 연 소소밀밀은 2017년 6월 현재 장소로 옮겨와 7년째 운영되고 있다. 경주에 연고가 없던 두 대표가 서울에서 경주로 이주해 서점을 차리게 된 건 그들의 계획에는 애초에 없던 일이었다. 2014년 그림책 출판 편집자였던 김 대표가 업무 미팅 차 경주를 방문했다가 경주에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던 구 대표도 김 대표의 뜻에 흔쾌히 동의했고, 그로부터 두 달 후 그들은 경주에 정착하게 되었다.

“서울 생활에 지쳐 소도시에서 살고 싶어서 2년 정도 살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남편과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하던 저에게 당시 작업실이 필요했는데, 한 지인께서 서점을 차려도 손님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니 작업실을 겸하기 딱 좋을 거라며 서점 창업을 추천하는 거예요. 서점을 차려도 여유 있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황리단길을 찾는 관광객이 갑자기 늘고 있는 바람에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서점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면서 어감도 좋은 서점 이름 ‘소소밀밀’은 동양화 기법 중 ‘성긴 곳은 더욱 성기게, 뾰족한 곳은 더욱 뾰족하게’ 그리는 ‘소소밀밀’에서 따왔다. 두 대표의 성격도 ‘소소밀밀’과 닮아 있어 평소 느긋한 성격의 김 대표는 ‘소소 아줌마’로, 꼼꼼한 성격의 구 대표는 ‘밀밀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소소밀밀 김지혜 대표와 구서보 대표.



구서보 대표가 직접 큐레이션한 100여 종이 넘는 국내외 그림책들.



<경주그림산책 소소하고 밀밀하게>.

따뜻한 공간 속 따뜻한 사람들

소소밀밀 앞마당에 들어서면 동화 속 서점 공간에 입장한 것처럼 차분해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서점 건물은 기와집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는데 건물 가운데 문을 중심으로 양옆으로는 구 대표의 그림이 그려진 창이 나 있고, 왼편에는 서점 로고 이미지가 그려진 하얀 천이 걸려 있으며 건물 벽면은 서점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순백색으로 칠해져 있다. 서점 내부는 느낌이 또 새롭다. 문을 여는 순간 영화 <해리 포터> 속 마법 공간으로 이동이라도 한 듯 황리단길의 소란은 지워지고, 마치 따스한 온기가 불어오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그림책 전문 서점답게 정중앙의 긴 테이블을 비롯해 앞뒤 벽면으로 100여 종이 넘는 국내외 그림책이 진열되어 있다. 북 큐레이션은 그림을 전공한 구 대표의 안목과 취향을 반영해 이뤄지는데 십수 년간 쌓은 노하우 덕분에인지 진열된 그림책 한 권 한 권 면면을 살펴보고 싶어진다. 그림책뿐 아니라 구 대표가 소소한 일상이나 경주 관련 유적들을 직접 드로잉한 그림으로 제작한 엽서와 자체 제작한 메모지와 노트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소소밀밀 운영 방식 중 가장 큰 특징은 '소장본 스티커' 부착과 '그림책 미리 보기'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서점이 소유한 책에 '견본' 혹은 '샘플'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 반해 소소밀밀에서는 '소장본'이란 스티커를 붙인다. 이는 손님들이 심리적으로 견본책

보다는 소장본 책을 조심히 다루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로 어린 손님들까지 책을 깨끗이 펼쳐 봐서 소장본 책의 상태도 좋은 편이다.

“그림책 미리 보기” 시스템은 비닐로 포장된 그림책 내용을 궁금해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소소밀밀만의 서비스예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의 페이지 일부를 미리 볼 수 있듯 소소밀밀의 소장본 책의 몇 장만 공개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비닐로 씌워 내용을 볼 수 없게 해두었어요. 책 내부를 공개하고 뒷이야기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 시스템을 위해 책을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금전적인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어린 손님들까지 반응이 좋은 편이라 이제는 소소밀밀만의 시그니처가 되었어요.”

소소밀밀은 그림책 전문 서점답게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손님이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젊은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늘고 있다. 관광지 중심에 서점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손님들로 두 대표의 감정 노동이 심한 편이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손님들도 많이 찾고 있어 항상 따뜻함을 유지한다. 여행 차 들렀다가 손주 생각이 나서 책을 골라가는 어르신들, 조카 선물로 책을 고르는 이모 삼촌들, 부모 등에 업혀 왔다가 어느새 걸어 다니며 읽을 책을 고르는 꼬마 손님들. 이들 모두가 소소밀밀 두 대표의 동력인 셈이다.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이야기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커리어에 도움 되는 실용서 위주로 독서하는 시대에 그림책은 독서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림책은 어린 시절 한때 읽고 마는 책으로 치부되기 쉽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소소밀밀을 방문하는 손님들께 그림책-동화책 용어 설명, 그림책 저작권 및 독서법 등을 친절히 설명하며 그림책을 소개한다. 대외적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외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작가와의 만남, 그림 강연 및 클래스 등을 통해 그림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저는 그림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미술관’이라고 생각해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도슨트 설명을 찾아 듣잖아요. 하지만 그림책을 읽을 때는 대부분 글을 읽은 후에 그림을 봐요. 저는 손님들에게 반대로 해보라고 권유해요. 훌륭한 예술 작품은 70%의 작품성과 30%의 관객 이해로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대표는 경주로 이사한 첫째 느꼈던 낯설과 외로움의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경주 생활 7년 차에 접어든 2019년에는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 사업 지원을 받아 김 대표가 글을 쓰고 구 대표가 그림을 그려 그림 에세이 <경주그림산책 소소하고 밀밀하게>를 펴내기도 했다. 경주 생활 9년 차에 접어든 2022년, 소소밀밀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5월 말경 경주 무열왕릉 인근으로 소소밀밀의 보금자리를 옮길 예정이에요. 현재 공간은 아트 스킵이나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꾸미면 어떨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행사나 이벤트도 지원 사업을 통해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에요. 2022년은 소소밀밀뿐 아니라 저희 두 사람에게도 또 한 번의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서보 대표가 스케치한 작품들.



소소밀밀의 아기자기한 간판.

소소밀밀의 시그니처 시스템, '그림책 미리 보기'. 책의 몇 장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닐을 씌워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소소밀밀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6시(월요일 휴무)

주소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92번길 16(황남동)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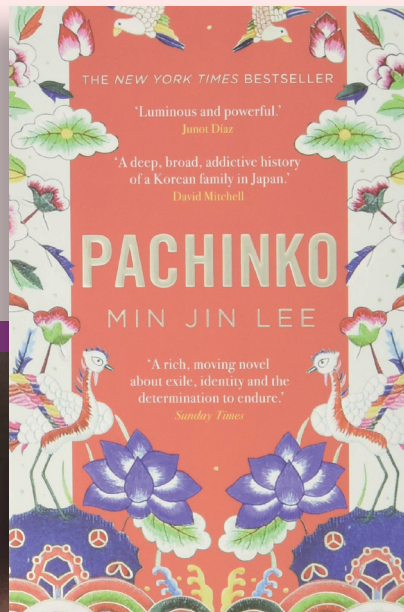
054-624-5022

@ www.instagram.com/sosomilml

이민진 <파친코> 차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글 남궁인 사진 출판사, 배급사

애플TV플러스 드라마 <파친코>가 흥행하면서 원작 소설 <파친코>에 대한 인기와 관심도 높아졌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일본에서 여러 재일교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제강점기 부산 영도에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한국인들의 파란만장한 사연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객관적 시선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차별의 역사를, 더 나아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차별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험으로 체득한 역사적 사실



어쩌다 보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내 부모님은 둘 다 한국 사람이었다. 조부모님과 그들의 형제들도 모두 한국 사람이었다. 이 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친구는 모두 한국 사람이었고, 그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입학까지 볼 수 있는 외국인은 영어 강사가 거의 전부였다. 나는 한(韓)민족으로 한국말을 하는 한국 국적의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사람들의 성장 배경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내 세상에서 보편적인 성장기를 보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균질함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물론 교과서는 항상 자랑스러운 단일 민족 국가를 논했다. 그 역시 따분했다. 이질감을 느끼거나 목격한 적이 없으니 그 반대를 감각하는 일도 어려웠다. 막연히 다름을 동경해 대학 입학 후 배낭여행을 다니고 외국어를 배우며

게걸스럽게 책을 읽었다. 그러다 문득 단일 민족이 단일 국가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 깨달았다. 이것은 세계를 통틀어 거의 찾기 힘든 이례적인 사건에 가까웠다. 솔직히 다른 삶에 대한 낭만이 있었다. 남들과 다른 외모, 다른 언어,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닌다면 신비로운 존재가 될 것 같았다. 비슷한 주변 사람들 속에서 다름을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를 파고들수록 다른 땅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민족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던 일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역사에서 항상 차별과 학살, 그리고 전쟁의 근원이었다. 타국으로의 긴 여행에서도 이방인으로서의 감각,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소설 속의 세계에서도 그랬다. 그 안에는 이방인들의 속내가 참혹할 정도로 고독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남궁인 —————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온한 날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공저) 등이 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많은 한국 소설 또한 이주해야 했던 사람들과 질곡의 역사, 이념, 한 맺힌 정서 등을 다뤘다. 주권을 빼앗겼거나 가난해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많은 한국인은 타국에서 거친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특유의 생활력으로 그 나라에 정착했다. 가장 많이 정착한 국가는 단연 미국과 중국이다.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에서 태어난 세대는 미국인의 자아와 더불어 살게 되었고, 중국으로 이주했던 한국인은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이 되어 중국인의 자아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다음 순위인 일본에서 한국인은 조금 다른 차원의 고난을 겪었다. 일본은 유독 배타적인 나라였고 한국은 ‘식민지’의 백성이었다. 일본 이주자는 세대를 거듭해도 계속되는 차별의 굴레에서 살았다. 하지만 유독 이들 세대에 걸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너무 아픈 과거이기 때문인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인지, 아마 모든 이유가 맞을 것이다. <파친코>는 재일한국인, 일명 ‘자이니치(在日)’를 정면으로 다룬 소설이다. 직역하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 같이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굳이 그들을 ‘일본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차별적 용어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놔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라는 첫 문장과 함께, 1910년 부산 영도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언청이 훈이로부터 소설은 시작한다. 당시 민초들은 끝없이 일을 하고 간신히 먹고사는 것이 목표였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기에는 교육 받은 사람조차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땅의 누구도 일제강점과 전쟁의 격랑을 피할 수 없었다. 질병과 가난으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다. 먹고살기 위해, 혹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낙원 대신 낙인을, 차이 대신 차별을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다. 고향을 잃은 조선인에게는 배타적인 문화와 끝없는 차별, 자아의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생활과 교육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가장 천한 직업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생활했음에도 국가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

다.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여행도 불가능했고, 신분증을 갱신할 때마다 이방인을 뜻하는 빨간 도장을 받았다. 남들과 다르다는 지긋지긋한 낙인이었다. 필사적으로 숨기고자 해도 뿌리는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파친코>의 수많은 인물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소설은 인물이 겪은 사건과 감정으로 우리를 설득한다. 4대에 걸친 일대기엔 작심한 듯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사회 문제가 나열되어 있다. 가부장제, 평생 순종하고 노동하던 여성의 삶, 종군 위안부, 일본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고문당하는 조선인, 북한으로 돌아간 조선인의 파멸, 원폭 피해자, 일본식 성매매 업소 소프랜드와 터키탕, 야쿠자와 파친코, 동성애자 등등.

<파친코>에는 역사적 고난으로 걸격을 지닌 군상이 각자 문제를 대표하며 등장한다. 제목인 파친코는 어쩔 수 없이 조선인이 해야 했던 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운에 많은 것을 걸어야 했던 시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마지막 세대의 인물 이름이 ‘솔로몬(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모든 세대의 교육이 집약된 그가 결국 차별이 만연한 세상을 인정하는 마지막 행보를 보이는 것까지도.

다름을 포용하는 자세와 노력

“<파친코>에는 역사적 고난으로 걸격을 지닌 군상이 각자 문제를 대표하며 등장한다. 제목인 파친코는 어쩔 수 없이 조선인이 해야 했던 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운에 많은 것을 걸어야 했던 시대를 상징하기도 한다.”

<파친코>는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후보에 올랐으며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았다. 이 책이 미국 문학계와 독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다. 미국 문단이 백인 남성 중심의 문학에서 탈피해 소수자로 시선을 돌린 것은 정말 오래전의 일이다. 본토에서 살았던 선조의 삶과 이민자로서의 자아를 교차하는 이야기는 다민족 국가인 미국 문단에서는 오히려 주류다. 미국식 개명을 거치지 않은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이름 또한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대중문화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동명의 드라마 <파친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이 필요하다. 미국 문단에서 탄생한 원작과 한국 문화가 복합된 드라마를 세계 시청 1위인 미국 기업이 1000억의 자본을 투자해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감독은 모두 한국계고, 등장인물의 대부분은 한국계거나 한국인이며 100년 전부터의 한국사를 다룬다. 제작비는 시대 고증에 아낌없이 투자되었다. 드라마는 네이티브 한국인에게도 이질적인 만큼의

사투리로 당시의 문화를 구현한다. 본디 문화란 고유한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지만 미국 자본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한다는 사실은 조금 낯설다. 지금은 한국계 미국인이 ‘일본에서 식민 지배로 탄압받은 한국인에 대해 쓴 영어 소설’을 미국 거대 자본이 ‘한국어 드라마’로 만들어 세계가 향유하는 시대다. 거꾸로 한국인이 그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배운다. 앞서 굳이 국적을 언급한 문장은 진부하지만, 한국의 달라진 문화적 위상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인 피해자인가, 아니면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가. 역사가 그들을 망쳐놓았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을 망치는 것은 사람일 것이다. 탄압받은 민족과 배타적인 문화, 삶과 가계에 뿌리내린 불행의 그림자는 만인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으니 고개를 돌려 진행 중인 차별을 봐야 한다. 다름을 포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조류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가해자가 되기 충분하다. ❶



맛도 영양도 만점, 오색 비빔밥

글 장성욱

그림책 <요리요정 라쿠쿠와 오색비빔밥>, 서영아 글·민택기 그림, 웅진주니어

“쿠쿠라라 라쿠쿠!” 요리요정 ‘라쿠쿠’는 맛있는 요리를 할 때마다 항상 신나게 주문을 외친다. 하얀색 양증맞은 제빵 모자를 쓰고 알록달록한 물방울무늬 손수건을 목에 두른 오렌지색 곰.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食(음식) 부문 키즈 부스의 메인 캐릭터였던 라쿠쿠가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비빔밥을 요리하는 그림책 <요리요정 라쿠쿠와 오색비빔밥>의 주인공 ‘요리요정 라쿠쿠’로 재탄생했다.

친구들이 밥 먹기를 싫어하면 풀이 죽지만, 밥 잘 먹는 친구들을 보면 기운이 뿜뿜 나는 요리요정 라쿠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색깔도 모양도 다양하고 싱싱한 재료를 들여다보며 오늘의 요리를 고민한다. “오늘은 어떤 예쁜 밥상을 만들까?” 맛

있는 상상, 행복한 상상, 건강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라쿠쿠는 마법 요리책에 하나둘 메모해둔다.

재료를 찬찬히 살피던 라쿠쿠, 드디어 생각난 듯 한마디를 내뱉는다. “그래, 오늘은 알록달록 예쁜 밥을 만들 거야.” 오늘의 요리는 맛도 영양도 만점인 오색 비빔밥. 요리를 시작하기 전, 라쿠쿠는 다시 한번 주문을 외친다. “쿠쿠라라 라쿠쿠, 두두두 두 둥!”

라쿠쿠는 사려 깊은 요리요정답게 어린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오감을 자극하는 즐거운 요리 체험을 선보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구름같이 하얀 밥은 바람개비를 이용해 식히고, “상추를 툭툭툭, 호박도 찹찹찹, 오이도 송

송송” 청각을 자극하며 신선한 초록색 채소 재료를 준비한다. 동그란 해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달걀을 밥 정중앙에 올리고, 빨간 고추장을 꽃잎처럼 하얀 밥과 초록 채소 위에 뿌리는 라쿠쿠. 마지막으로 시원한 바다 향기가 나는 보슬보슬 까만 김을 뿌리고 참기름을 툭툭툭 뿌려 맛도 영양도 만점인 오색 비빔밥을 완성한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요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요리요정 라쿠쿠에게 오색 비빔밥의 완성은 친구와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내 친구가 등장하자 신난 라쿠쿠는 비빔밥을 먹기 전 친구와 함께 마지막으로 주문을 외친다. “맛있는 밥, 행복한 밥, 건강한 밥, 요리요정 라쿠쿠의 오색 비빔밥! 쿠쿠라라 라쿠쿠 두두두 두 둥!” ❶

recipe

영 양 가 득 레 시 피



오
색
비
빔
밥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오색 비빔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선한 재료를 듬뿍 넣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취향을 저격하는
든든한 오색 비빔밥 한 그릇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재료



❶ 시금치 한 줌



❷ 콩나물 한 줌



❸ 애호박 1/3개



❹ 당근 1/4개



❺ 다진 쇠고기 150g



❻ 달걀 1개

양념장

설탕 1/2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매실청 1큰술, 고추장 2큰술, 소금, 통깨, 참기름

01 당근과 애호박은 채썰기로 손질한다.

02 다진 쇠고기는 핏물을 제거한 후, 밀간한다.

쇠고기 양념 : 다진 마늘 1/2큰술, 진간장 1.5큰술, 맛술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후추 약간

03 콩나물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5분간,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다.

04 데친 콩나물과 시금치는 각각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어 무친다.

05 채썰기 해둔 당근과 애호박은 기름 두른 팬에 소금을 넣고 볶는다.

06 밀간해둔 쇠고기는 강불로 볶고, 마지막으로 달걀프라이를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07 밥 위에 색깔별로 채소와 고기, 달걀프라이를 올리고 양념장을 뿌려주면 오색 비빔밥 완성!

Good! 양파, 배추, 버섯 등 기호에 맞게 다른 채소를 넣어도 영양 만점 비빔밥을 만들 수 있어요!

스티븐 크보스키 소설 <월플라워> 속 더 스미스 'Asleep'

10대라는 터널을 무사히 지나온 우리들에게

스티븐 크보스키의 소설 <월플라워> 속 주인공 '찰리'는 어린 시절 겪은 성적 학대와 가장 친한 친구의 자살을 겪으며 작은 충격에도 버티기 힘든 마음 여린 소년이다.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를 중학교 친구들은 모른 척하고, 평소 의지했던 누나는 남자친구에게 폭 빠져 학교에선 거리를 둔다. 매일이 고역이자 두려움인 학교생활, 소년은 오늘도 무거운 등굣길을 걷는다.

글 조혜림 사진 출판사, 배급사



Asleep

10대 월플라워 '찰리'의 기나긴 성장통

책을 좋아하고 글을 잘 쓰는 찰리는 매일 자살한 친구 마이클에게 편지를 쓴다. 소설 <월플라워>는 찰리가 마이클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을 읽는 내내 우리는 독자라는 미명하에 찰리라는 10대 소년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그리고 첫사랑과 꿈에 대한 속내를 몰래 엿보게 된다.

수줍음 많은 찰리는 학교에서 '낫쌍'이라고 불리는 괴짜 소년 패트릭에게 처음으로 용기를 내 말을 건다. 그 일을 계기로 찰리는 패트릭의 이복동생 샘과도 친해진다. 자신감 없고 존재감 없던 찰리는 샘, 패트릭과 친구가 되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기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와 동시에 아름다운 샘에게 첫사랑이란 감정을 느끼며 죄책감 섞인 황홀감에 빠진다.

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댄스파티에 참석한 찰리에게 비틀즈의 'black bird', U2의 'MLK'를 불러준다. 샘과 패트릭 남매는 학교 안 자신들의 그룹에서 한때 왕따를 당했지만 상냥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착한 찰리를 '월플라워(Wallflower)'라고 소개하며 반겨준다. "넌 그저 지켜보고, 너만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넌 월플라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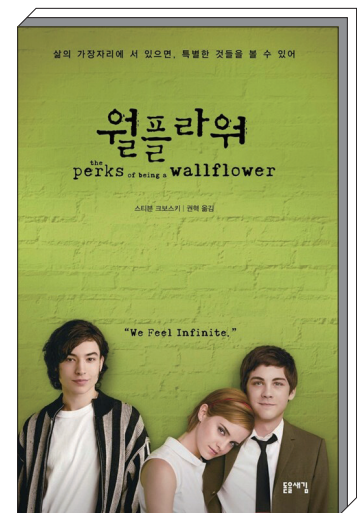
파티가 끝난 후 찰리는 샘과 패트릭의 픽업트럭을 타고 도로를 달린다. 픽업트럭의 짐칸에서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 플리트우드 맥의 'Landslide'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찰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경이로운 행복감에 젖는다. 터널을 빠져나와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성 같은 빛줄기를 바라보며 무한한 자유를 느낀 찰리. 마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현재의 어둠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듯한 쾌감을 맞본다. 이 순간만은 늙지 않고 영원히 쏟아지는 유성처럼 마음속에 언제나 빛날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얼굴을 내미는 세상 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밴드 '더 스미스'

소설 <월플라워>는 청소년의 상처와 방황, 첫사랑과 꿈에 대한 문 제뿐 아니라 LGBT, 마약, 정신병 등을 다룬 가법지만은 않은 소설이다. 찰리에게 첫사랑이 찾아오고 친구가 생겨도, 과거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동성애자 패트릭은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 당하고 학우들에게 구타당한다. 샘과 찰리의 누나는 남자친구에게 이용당하고 진로에 대해 끝없이 고민한다. 그들의 고민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청춘은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등을 떠밀 뿐이다.

소설에는 찰리가 즐겨 듣는 노래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비틀즈의 'Something', 수잔 베가의 'Gypsy', 사이먼 앤 가펄클의 'Scarborough Fair' 등 다양한 곡들이 소개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 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곡은 영국의 밴드 더 스미스의 'Asleep'이다. 찰리의 누나를 좋아하던 남학생이 그녀를 위해 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해 선물하지만 정작 그녀는 정성이 담긴 테이프를 듣지도 않고 동생 찰리에게 준다. 그 테이프에 'Asleep'이 녹음돼 있었고 찰리는 마이클에게 들려주고 싶을 정도로 이 곡이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찰리는 샘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때 도 이 곡을 듣는다.



<월플라워>, 스티븐 크보스키



1982년 결성된 영국 맨체스터 출신 밴드 더 스미스(The Smiths).



1965년 결성된 영국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

먼저 ‘어슬립’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화창한 어떤 날을 그려봐.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를 떠올려봐. 그리고 네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이 등 뒤에서 안아주는 모습을 상상해봐. 그러면 그 사진을 상상할 수 있을 거야.

- 소설 <월플라워> 중에서

1982년에 결성된 영국 맨체스터 출신 밴드 더 스미스(The Smiths)는 가장 평범한 이름으로 밴드명을 지었다. 리더 모리세이는 ‘Smith’는 가장 평범한 이름이며, 이제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더 스미스로 지었다고 말했다. 찰리가 더 스미스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서 지켜보는 ‘월플라워’인 찰리는 평범하지만 이제 막 세상에 얼굴을 내밀어 특별한 것들을 보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Sing me to sleep
잘 수 있게 노래를 불러줘.
And then leave me alone
그리고 날 혼자 내버려 뒀.
Don't try to wake me in the morning
아침이라도 나를 깨우려고 하지 마.
I want you to know
나는 네가 알기를 바라.
Deep in the cell of my heart
내 심장 저 깊숙이부터
I will feel so glad to go
나는 떠나가는 것이 좋아.
- ‘Asleep’ 가사 중에서

찰리가 사랑하는 노래 ‘Asleep’은 그의 마음을 대변한다. 찰리는 트라우마(성적 학대, 이모의 죽음, 가장 친한 친구의 자살)로 인해 홀로 깊이 잠들고 싶어 했다. 그렇기에 스스로 사람들을 거부해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연 샘과 패트릭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이 곡을 들려준다. 그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길, 꺼내주길, 깊은 잠에서 깨워주길 바라면서.

방황하는 청춘을 대변하는 노래

핑크 플로이드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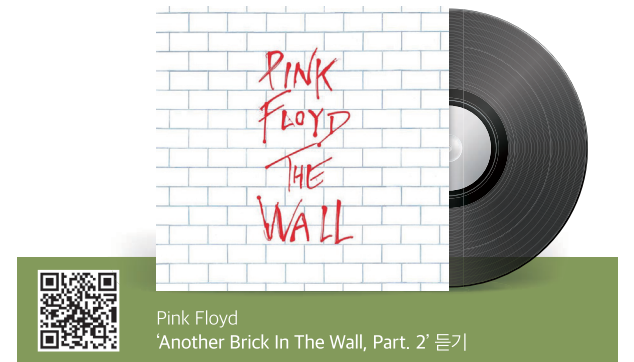
We don't need no education
우리는 교육이 필요 없어요.
We don't need no thought control
우리는 생각을 통제받고 싶지 않아요.
-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가사 중에서

영국의 실험적인 프로그레시브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가장 유명한 곡인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는 교육을 넘어 사상과 자유의 통제에 항거하는 곡으로 소설 속 방황하는 청춘들의 성장통을 대변한다. 청소년들은 신체와 정신의 급격한 성장을 맞이하며 낯설고 두려운 미래를 떠올리면서 기존 질서를 부수고 싶어 한다. 소설 속 청춘들 역시 술과 담배, 약물과 섹스 등을 통해 불안을 이겨내고자 한다.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가 실린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The wall>의 뮤직비디오 속 주인공이자 가상의 인물 핑크가 학교를 불태우고 벽을 부수는 모습은 소설 속 수동적인 찰리가 자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모습과도 오버랩된다.



THE SMITHS

"LOUDER THAN BOMBS"

The Smiths
'Asleep' 듣기PINK FLOYD
THE WALLPink Floyd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듣기

세상의 중심에서 춤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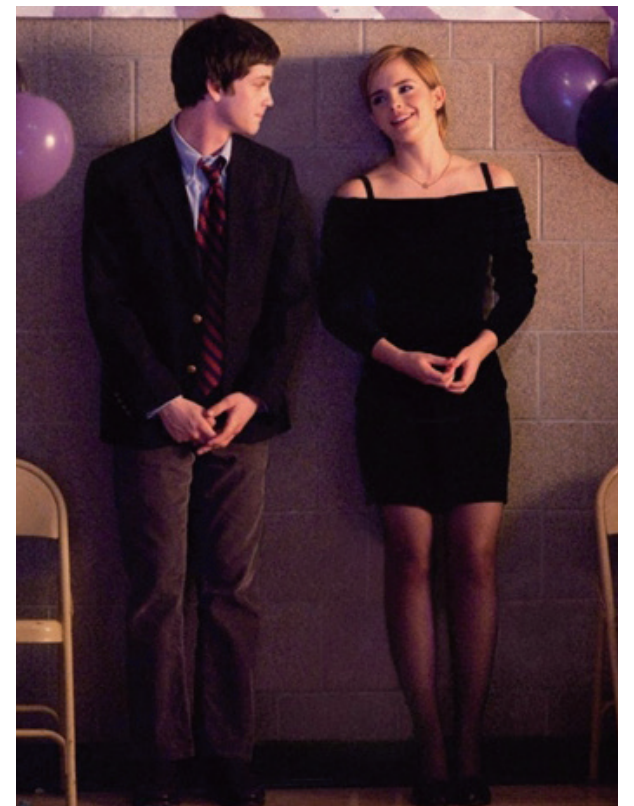
월플라워

찰리가 바라본 10대들의 세상은 우리가 자칫 놓쳤거나 지나쳤던, 혹은 경험했던 것들이다. 나 역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던 적도, 주변을 맴돌고 섞이지 못한 적도 있다. 작은 스침에도 크게 충격을 받고 날카로운 단어에 몇 날 밤을 잠들지 못하며 길고 긴 터널 같았던 10대를 보내며, ‘10대가 끝나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항상 궁금했다. 매일이 살아남의 연속이었던 날들. 이제야 희미하게나마 희극으로 보이게 된 그 시절, 그것이 청춘이고 10대 시절이었다.

소설의 마지막에 또다시 샘, 패트릭과 함께 픽업트럭을 타고 터널을 지나던 찰리는 눈물을 흘린다. 얼굴 위로 부딪쳐오는 실제 바람을 맞으며 터널 속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다. 찰리는 과거나 어떠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그로 인해 이 순간이 영원함을 느낀다. 소설 마지막, 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지켜보는 ‘월플라워’였던 그는 이제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느라 바쁠 예정이기 때문이다. ❷

조혜림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집필한 저서에는 <페이지스 7집 : 다시보기>가 있다.



월플라워였던 찰리는 샘과 패트릭을 만나 결국에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news

국립중앙도서관

01

‘2022년도 납본 유공자’ 표창

국립중앙도서관은 3월 31일(목), 올해 우수 납본 출판사로 ㈜위즈덤하우스(일반도서 부문)와 ㈜북이십일(온라인 자료 부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제도 시행일인 1965년 3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우수 납본 출판사를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하고 있다. 납본 유공자는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법정기일(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준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발간 자료를 납본하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제도에 적극 참여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일반도서 부문 수상자인 ㈜위즈덤하우스는 뛰어난 기획력으로 출판한 양질의 도서를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납본하여 국가 문헌의 영구 보존에 기여하였다. 한편 온라인 자료 부문 수상자인 ㈜북이십일은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2016년 8월) 이후 발행한 납본 대상 자료(ISBN 부여)의 98.2%를 납본하여 후대 전승은 물론 대국민 지식 정보 제공에 기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속한 납본을 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이 빠짐없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되기 위해 출판계에서 납본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납본제도 시행일을 기념하여 매년 3월 말에 진행하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표창장과 상패를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문의 장서개발과 02-590-0659

02

아이유 ISNI는 0000 0004 0681 4670, 세계와 접속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소속 창작자 4만 312명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이름식별자(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이하 ISNI)를 발급하고 음악 분야 콘텐츠 93만 7000여 건의 데이터를 연계·공유하였다. 국제표준이름식별자는 문학, 학술, 음악, 영화, 방송 등 창작, 제작, 연구, 실연 분야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의 공적신원(Public Identities)에 부여하는 16자리 국제표준 식별 번호이다. 가수 조용필은 ISNI 0000 0003 9287 0486, 아이유는 ISNI 0000 0004 0681 4670을 가지고 있다. 국제표준인 ISNI는 수많은 동명이인을 식별함으로써 정확한 검색뿐 아니라 창작자와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적 홍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없이 국가 차원의 기관 간 창작자 데이터 연계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ISNI 국제기구를 통해 콘텐츠의 세계적 접근성 확보와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문의 국가서지과 02-3483-8871



ISNI-KOREA 누리집.

국립중앙도서관

03

미디어 기술 활용법과 1인 미디어 창작, 도서관에서 배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 21일(목)부터 2022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도서관 기반의 올바른 미디어 기술 활용과 창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시민(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국립중앙도서관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은 크게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1인 미디어 아카데미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2022년에는 교육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대상별 맞춤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간 프로그램(36개 과정)을 구성·기획하였다. 특히 올해는 2022년 ‘청년 책의 해’와 연계하여 예비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창작물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크리에이터가 강사로 나서는 청년 북튜버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의 모집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83-8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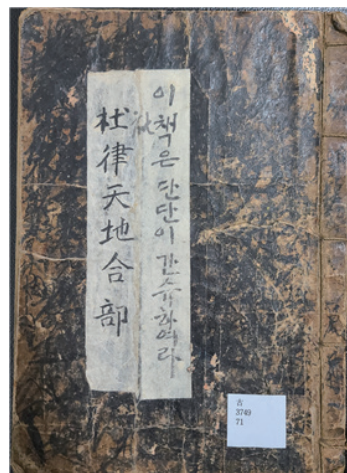
구독 전자자원 활용교육 모집 포스터.

04

고문헌 기증, 작은 한걸음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 12일(화)부터 2023년 3월 31일(금)까지 2022년도 고문헌 기증전 <기증, 작은 한걸음부터>를 고문헌실(본관 5층)에서 개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9년부터 고문헌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전년도 기증자와 기증 자료를 모아 기증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헌을 기증한 22명을 선정하여 기증 자료 284종 533책 중 기증자별 대표 자료를 선보이고, 소장했던 경위와 기증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고자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보따리 하나를 소중히 메고 피난 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 보따리 속 가보를 기증하신 조병국, 1974년 아버지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헌을 기증하였고, 대를 이어 기증하신 이용복 등 다채로운 기증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시 관람은 도서관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도 제공한다. 기증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서지 정보를 서비스 중이다.

문의 고문헌과 02-590-0506



기증 자료 <杜律天地舍部(두율천지함부)>.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율시를 모은 책이다.

news

국립중앙도서관

05

2022년 제1회 '저자와의 만남'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 14일(목) 오후 5시 본관 1층 열린마당에서 객재식 작가를 초청하여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작가의 저서 <지구는 랜잡아, 우리가 문제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연에 앞서 '뮤지스의 현악 3중주 클래식 공연도 진행되었다. 객재식 작가는 카이스트(KAIST)에서 화학 및 기술정책을 전공한 공학 박사로서 SF소설을 중심으로 여러 장르에 걸쳐 다수의 소설집을 출간했다. 작가만의 유쾌한 스토리텔링으로 KBS 라디오 <객재식의 과학 수다>를 비롯해 대중 방송에서 과학 강연을 하고 있다. 본 강연은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2



'저자와의 만남' 포스터.

06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박주옥)은 5월 26일(목) '청소년 독서토론'을 주제로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가 독서 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실습하여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 및 사서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하여 매년 실무 중심의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워크숍은 4월부터 11월까지 '메타버스 리터러시', '청소년 독서토론', '디지털 리터러시',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감각적인 홍보물 제작', '코딩을 활용한 책 읽기'를 주제로 총 12회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서는 각 과정 신청 기간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5



07

방정환 선생이 들려주는 효심 깊은 호랑이 이야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박주옥)은 도서관 주간을 맞이하여 4월 12일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 영상을 누리집(www.nlcy.go.kr) 및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6년 잡지 <어린이>에 소개한 전래동화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이다. <어린이>는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창간한 아동문학 잡지이다. '호랑이 형님'은 나무꾼에게 속아 나무꾼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믿게 된 효심 깊은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다. 호랑이는 매달 어머니를 위해 짐승을 잡아 어머니를 봉양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슬픔에 잠겨 죽고 만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은 선조들의 중요 덕목이었던 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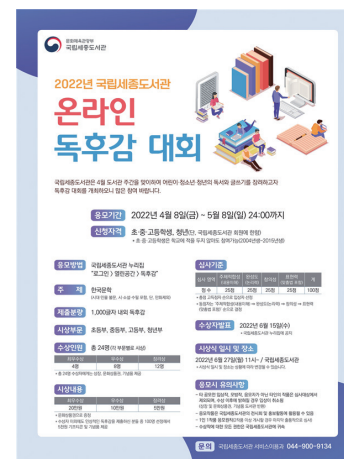
<이야기가 있는 문화공연> 섬네일.

08

한국문학 주제로 독후감 공모 대회

국립세종도서관(관장 이민석)은 4월 8일(금)부터 5월 8일(일)까지 초·중·고등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를 연다. 이번 독후감 대회는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의 독서와 글쓰기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우리나라 문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독서를 선정하여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http://sejong.nl.go.kr) 열린공간 독후감 메뉴를 통해 1000글자 내외 독후감을 작성하여 응모하면 된다. 수상작은 6월 15일(수) 누리집에 발표하고, 시상식은 6월 27일(월) 11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있을 예정이며 응모한 작품 중 초·중·고·청년 부문별 최우수상 각 1명(20만원), 우수상 각 2명(10만원), 장려상 각 3명(5만원)으로 총 24명(220만원)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과 상장 및 기념품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인상적인 독후감을 제출한 100명을 선정하여 5000원 기프트콘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독후감 대회 심사 기준, 응모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http://sejong.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34



2022년 국립세종도서관 온라인 독후감 대회 포스터.

news

국내외 도서관

① 대통령 소속 제7기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해단식 개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이하 도서관위원회)가 제7기 위촉직 위원 임기 종료(‘20.4.9.~’22.4.8.)를 맞이해 해단식을 개최했다. 2020년 4월 9일 출범한 제7기 도서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제6기·제7기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신기남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19명으로 구성되었다. 해단식은 4월 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으며,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을 비롯해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다수가 참석했다.

② 제58회 도서관주간 기념 포럼 ‘도서관에 기술을 입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4월 12일(화) 오후 2시, ‘도서관에 기술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제58회 도서관주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③ 서울도서관,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책바다 서비스’ 택배비 일부 지원

서울도서관은 서울시민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인 ‘책바다 서비스’ 왕복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2021년에는 총 5308건(185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원 수를 확대하여 총 6756건(2364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도서관

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7기 해단식 모습.



② 제58회 도서관주간 기념 포럼 포스터.



④ 남산도서관 챗봇 홍보문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⑤ 레플리카전 포스터 (출처: 경북도서관).

④ 도서관 전용 챗봇 ‘남산도서관 도소리’ 서비스 운영

남산도서관은 365일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도서관 전용 챗봇 서비스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대화를 뜻하는 챗(chat)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채팅하듯 메시지를 보내면 인공지능(AI)이 메시지를 인식해서 해당 질문에 답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남산도서관은 챗봇을 이용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단순하고 반복되는 질의와 응답을 24시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

⑤ 경북도서관, 세계명화와 함께하는 ‘레플리카전’ 개최

경상북도 대표 도서관인 경북도서관(관장 정선홍)에서 4월 도서관 주간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계명화와 함께하는 색깔 여행 레플리카(replica: 그림이나 조각 등의 원작을 복제한 작품)전>을 개최한다. 전 세계 유명 화가 작품이 다뤄지는 이번 전시는, 작품 크기나 질감 면에서 실제 작품과 유사하도록 특수 처리된 복제화를 다섯 가지 색깔별로 구분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중섭, 빈센트 반 고흐, 앙리 마티스, 마르크 샤갈,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피에트 몬드리안, 구스타프 클림트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35점가량의 대표작을 레플리카로 선보일 예정이다.

⑥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도서 금지에 반대하며 도서관을 신뢰한다

미국 전역의 모든 주에서 특정 도서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이 공공도서관에서 특정 도서를 금지시키려는 활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권자들과 학부모들은 사서를 높이 존경하고, 지역 도서관이 장서에 포함시킬 책을 잘 선정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다양한 관점을 대변하는 책들을 잘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금지 도서에는 오늘날의 미국에서 노예제와 인종차별주의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 역사에 관한 책들이 포함되었다.

⑦ 호주도서관정보협회, 도서관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전문 인증 보고서> 발간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가 도서관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 보고서 <도서관 전문가 인증 보고서(Professional Pathways Technical Report)>를 공개했다. ALIA 회장이자 도서관전문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길리안 할람(Gillian Hallam) 박사가 작성한 이 기술 보고서는 1000건에 가까운 자료를 참고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통합하여 도서관 및 정보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교육 및 인증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조사했다. <도서관 전문가 인증 보고서>(개요) 전문 번역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librarian.nl.go.kr) 월드라이브러리에서 6월에 제공될 예정이다.

news

국내외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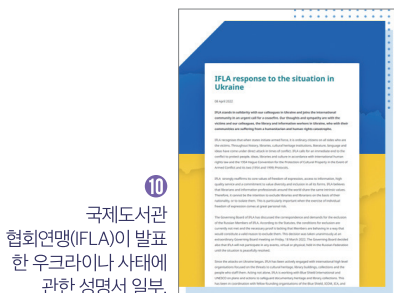
국외
도서관

⑧ 미국도서관협회, 개인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현장지침 발표

도서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의 사생활과 기밀성, 보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현장지침’이 새로 발간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위원회와 지적자유위원회 부속 개인정보 소위원회가 박물관도서관서비스 지원 기구의 기금을 지원 받아 제작한 이 지침은 도서관 직원들과 이사회에 개인정보 권리와 관련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⑥ 금지 도서 중 하나인 <앵무새 죽이기>.



⑩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성명서 일부.

⑨ 10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가상 현실 웹사이트 운영 개시

워싱턴주 시애틀과 텍사스주 시골에 있는 3개의 공공도서관이 가상현실 디자인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출범시켰다. 워싱턴주의 시애틀 공공도서관(The Seattle Public Library)과 콜롬비아지구 공공도서관(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 그리고 텍사스주 라그란지의 파예트 공공도서관박물관아카이브(Fayette Public Library, Museum & Archives)가 'VRtality.org'를 개설했다. 세 도서관이 개발한 VR 시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VRtality는 도서관과 기타 청소년 지원 기관이 가상 현실 체험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장기적인 정신 건강을 지원하도록 돕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⑩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성명서 발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IFLA의 동료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해 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IFLA는 인도적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희생자들과 동료들, 도서관 및 정보 분야 근로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국민, 사상, 도서관 및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하며, 전 세계 도서관과 사서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료들과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책바다? 책 받아! (국가상호대차 서비스 신청 안내)

글 이혜민 그림 보리보리쌀

